

洪州文化

第 2 號

洪州鄉土文化研究會

대전중구문화원 042-256-3684
홍주문화 제2집



0002886

이제부터는 2년 3월 23일에
기증받았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로 부터
사단법인 대전 문화원

목 차

☐ 권두언 (회장)/2

☐ 홍주의 밝기 문화론 (배동순)/3

☐ 탐방기

- 팔명학교를 찾아서(2) (주옥로)/10
- 홍성군내에 산재해 있는 성지(上) (박문신)/14
- 문화재탐방 (전윤)/18

☐ 논단

- 홍주의 인쇄문화(2) (배동순)/21
- 결성의 연혁과 읍치 (황성창)/25
- 안회당과 취은루(2) (전옥진)/27

☐ 내고장 얘기

- 결성농요 (황성창)/35
- 옛 숨은 인사찾기 (이건엽)/39
- 홍성읍과 광천읍의 “읍”승격시기에 대한 고찰 (편집실)/40
- 향토사 정보 (편집실)/46

☐ 수필, 시

- 조상의 얼 담긴것 (박문신)/48
- 뿌리를 캐는 분들의 건강 (김용신)/49
- 중국기행 (허규)/50

☐ 편집후기 /54

洪州始源文化의 열



裨 東 順

洪州郷土文化研究會長

우리가 향토사를 밝히고 향토문화를 탐구하는 것은 결코 과거에 대한 성찰만이 아니고 그 보다는 오히려 오늘의 위상을 알고 내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다. 향토에는 향토 고유의 문화가 있고 향토 나름대로의 특유한 전통과 생활의 향내음이 있다.

“강남에서 자라는 굴을 강북에 옮겨 심었더니 탱자가 되더라”는 이 말은 옛날 중국 제(齊)나라 재상 안영(晏嬰)이 한 말이다. 동식물 사람 할 것없이 생물들은 지구의 경위선에 따라 풍토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굴이 변하여 탱자가 되고 탱자가 변하여 굴이 된다는 것은 그에 알맞는 풍토가 따로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굴이 성장하는 지역을 굴의 향토라 하고 탱자가 성장하는 지역을 탱자의 향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홍성인이 사는 사회를 “홍성향토”라 하고 이곳에서 꽃피운 문화를 “홍성(홍주)향토문화”라 한다.

술맛도 지방의 물에 따라 특수한 술이 양조되듯이 물은 향토고유의 인자(因子)가 된다. 향토고유의 인자는 크게 구별하여 불변인자와 가변인자로 나눌 수 있다. 불변인자로는 산과 산의 골육에서 흐르는 물이 되고 가변인자로는 태양의 일조량과 공기 흐름의 변화가 된다. 그 가운데서 중심좌표가 되는 곳은 그 굴의 지령(地靈)이 되는 진산(鎭山)이다.

여기 홍성의 중심좌표는 지령을 한테 갈마 지닌 진산이다. 이 진산은 월산(月山)인데 이 월산은 세가지 이름으로 호칭되고 있다.

하나는 백월산(白月山)이라 해서 만월을 상징하고 있는 “밝달산”이다. 백월산을 꼭 중앙으로 하여 동심(同心)거리에 하현(下弦)의 구월산(황해도)이 있고 상현(上弦)의 월출산(전라남도)이 있다.

하나는 일월산(日月山)이라 해서 동에 달이 뜨고 서에 해가 지는 상(象)그가 “일월산”이다. 달과 해가 인척력(引斥力)의 조화를 지녔기 때문에 달도 태극월(太極月)이요 해도 태극일(太極日)이 된다. 주야작명(晝夜長明)의 상수(象數)는 정륜태화(正倫泰和)의 길수이다.

하나는 월산(月山)이라 해서 종곡(種穀)의 발아(發芽)를 돕는 월량(月亮)의 산이라 한국 월십자(月十字)의 중앙으로서 예로부터 농경문화를 꽃피워 온 내포문화의 산실(産室)이다.

일용삼태(一容三態)의 월산은 홍성의 진산으로서 홍주문화 발전의 심장역할을 해 왔다. 그 심장의 고동은 정신문화의 장(場)이 되는 뇌(腦:제일뇌<古皮質>신이뇌<新皮質>)을 형성해 왔다.

인간의 의식(意識=精神文化)은 심피질적인 사고(思考)와 고피질적인 감정(感情)에서 성립된다. 사고와 감정의 관계는 혼(魂)과 육(肉)주관과 객관의 관계와 같다. 이 지방의 향토문화는 감정(古皮質)의 원천인 월산의 체(體)와 그 용(用)인 물에 기인되고 있다. 그리고 사고(新皮質)의 원천인 환경의 체(體)와 그 용(用:人文作用)의 변화에서 끈임 없이 창성(創成)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고장 백월산의 지령(地靈)은 인간에 비유하면 무의식과 같아서 주로 감정의 영역에서 사고의 분야에 까지 자력선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홍성땅의 자장(磁場)에 특수한 주파주기를 조양(造釀)하고 있는 백월산의 지령이 이 고장 고유진동주기의 모델이 되어 있다. 이 고유진동주기의 모델이 이 고장 정신문화의 성격과 유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홍주 진산(鎭山)에 깃들인 “밝달의 혼”이며 “주야장명의 뇌”이며 “월량의 영”이 우리고장 정신문명의 모체임을 스스로 자각케 된다. 이 정신문명의 모체는 오랜 세월동안 여과되어 향토의 종족심(種族心)이 되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들의 힘과 문화는 종족심(種族心)이 만들어 주는 씨베스와 그에 규합하려는 구심성에 의하여 더욱 성숙해 가는 것이다. 월량(月亮)의 중력과 진산의 자력선과 단결된 종족심이 삼합이 되어 홍성사람들의 밀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형적공동의식의 바다에서 홍성인들의 잠재의식에 감동적 정서의 이미지를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홍주(홍성)문화의 원천(源泉)이요 향토문화의 열이 파동 모델이다.

1991. 10

“
洪州의 밝기(光明)
문화론
”

2) 백월산(白月山)해의(解義)

一) 『붉달』 문화의 연원

태양의 광명(光明)을 좋아하는 우리 겨레는 대집단이나 소집단을 막론하고 이동 정착할 때에는 그 정착지의 주산진, 대개 광명한 산악 조양의 땅이라는 의미로 ‘백산(白山)’ ‘백악(白岳)’ ‘조산(朝山)’ 등의 의미로 불렀다.

‘아사달(阿斯達)’이 혹은 처음 도읍지로 혹은 이도처(移都處)로 혹은 은거지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아사달의 ‘아사(阿斯)’는 ‘아침’을 ‘달(達)’은 ‘산’ 또는 고원지대를 말하는 우리말의 한자음 발음이다.

‘아사달’은 곧 해가 아침 일찍 비치는 광명(光明)의 땅을 말하는 ‘백산(白山·朴山·白岳)’ 등의 뜻과도 통하는 것이며 국호 조선(朝鮮) 또한 조양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니

裴 東 順
洪州郷土文化研究會長

그 뜻은 ‘아사달(阿斯達)’과 같은 것이다. 환언하면 아사 ‘(阿斯)’는 ‘조(아침:朝)’이며 ‘달(達)’은 고어의 산이요 곧 ‘조산(朝山:아침산)’ 밝은산이므로 일명 ‘백산(白山)’이라 하였고 ‘태백산(太白山)’에 강림한 ‘태백(太伯)’은 한 밝기니 대광명산이라 천신(天神)이 강림한 신산(神山)을 뜻한다. 우리겨레는 하천문명기원(河川文明起源)이 아니라 산악문명기원사상(山岳文明起源思想)이었던 것이다. ‘뽕(白)’이란 『밝기사상』은 실은 이 고장 정신문화의 원천으로써 우리 홍주 문화사는 이 『밝기정신』의 선양과 맥을 함께 한다.

이 『밝은문화』의 사상은 홍주겨레의 구원한 생명의식의 자각이며 생활이상의 표상으로서 실로 홍주군민정신문화의 착근(着根)처가 되는 곳이다.

二) 백월산(白月山)의 어음탐구(語音探究)

1) 백월산(白月山)의 음훈

(1) 白 …………… 흰 백(西方色素也)
 밝을백(光線<密室生白>)
 분명할 백(明也<白道>)

(2) 月 …………… 달월(太陰精・水精・土精)
 한 달월(30日<月以爲量>)

(3) 山 …………… 뽕 산・메 산(峯嶺)

三) 백(白)자의 어음 탐구

1) 뽕(白)의 어원

백(白)은 이두로는 ‘뽕괄(白括)’로 읽어왔

다. 이것은 백(白)이 일찍부터 ‘뽕’또는 ‘뽕’과 같이 읽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백(白)은 입성(入聲)으로 운미(韻尾)의 자음(子音)이 -K로 되어 있으나 상고(上古)에는 이에 대립하는 음성의 -g가 있었으나 아니면 -rk와 같은 복합자음(複合子音)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중기 한자음에 따르면 백(白)은 ‘뽕’과 같이 되어 있는데 으모음에 후속한 ‘으모음’은 그 전대의 -r에서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백(白)의 고구 발려 대응음들 bark/ber과 같은것으로 추정하고 원(原:der)으로 간주한다. 백(白)의 재구음(再構音)의 가장 이른 시기의 음형은 biwëk가 아닐까 한다. 우・옥・뽕・평(子・郁・白・平)이 등가적(等價的)이라는 가설에 선다면 이들은 biweg으로 소급되어야 하며 이러한 형태는 적어도 서한대(西漢代)보다 앞선 시기의 차용음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때 우・옥・뽕・평(子・郁・白・平)의 상고음은 b-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 b-는 고구려의 b-에 대응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백(白)의 고음이 bark이니 ‘뽕-palg’과의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박달(bak-tar)’을 중심으로 하여 살던 부족의 이름으로 전용되고 다시 이러한 분파의 취락명 진산(鎭山)명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2) 백(白)의 음차(音借)=(박:bek)

배달민족이란 호칭은 ‘백천(白川)’이 ‘배천’으로 읽히듯이 음차(音借)한 한자음의 변천에 따른 ‘박달(白山)’의 와전이 틀림 없다. 배달(倍達)을 배달이라 쓰는데 이 배(倍)는 옛음이 bag이었으니 실은「배달」도 ‘박달’의 유사표현인데 후세에 변한음대로 읽다보니

배달이라고 읽게 된 것으로 출이된다.

다음에 '태백산(太伯山)'이 '태백산(太白山)'으로도 표기되는데 백(伯)과 백(白)만은 음차(音借)임이 분명하다. 「중국어 음운론(中國語音韻論)」에 의하면 백(伯)의 상고음(AD. 600년경)이 Pek이고 백(白)의 그것은 bek이며 이들의 만주음(滿洲音)이 모두 ba이므로 국어의 음운체계상으로 보아서 p·b)의 변화가 예상되니 '백(伯), 백(白)'의 우리 고음은 함께 '박(Pak)'이었을 것이다.

진산 취락이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백산(白山)·백악(白岳)·태백산(太伯山)·소백산(小白山)·박달(朴達)등의 산명, 지명이 그 지역 일원에 깔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명되고 남음이 있다 하겠다.

3) 붉(白:bark)의 호칭

백(白)의 고음(古音)이 '붉-(bark)'이니 '불·붉'과 같이 호칭 되어 왔다. 붉이란 본디 신명 또는 성령을 뜻하는 말로서 나중에 최고지상의 존재를 일컫는 이름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해를 한자로 태양신(太陽神: 光明神·火神)또는 천주신으로 나타냈고 이들의 지명으로는 태백(太伯)·소백(小白)·백산(白山)·백월산(白月山)등과 같이 백(白)자를 써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밝을 위경(畏敬)사상으로 지녀왔기 때문에 신체의 중요한 부분에 발, 벌, 불(협)·불(고환:)·박(붉:頭)·배(腹)보(女陰)등에 붙여졌고 그 밖에도 불(火)·벌()·불취(뿌리:根)등과 같이 자연의 중요한 것에도 '붉-북'의 훈(訓)과 음이 많이 쓰이고 있다.

신을 나타내는 「부루」또는 「박」의 사음으로 백(白)자를 많이 썼다. 단군(檀君)이 이 땅에 내려온 곳은 지금의 평안북도의 북향

산(妙香山)이다. 단군의 성적이라고 하는 암굴(岩窟)이 이산중에 있는데 묘향산을 고명으로는 태백산(太白山)이라고 하였다. 최남선(崔南善)은 우리나라의 고산 명산의 이름을 말할때 대개 백(白)자로 되어 있다고 하였거니와 한국의 최고봉인 '백두산'을 비롯하여 서울의 북단을 이루는 '백악(白岳=北漢山)'구월산의 상봉이 되는 '백악(白岳)'한라산의 '백록담(白鹿潭)'도 대개 이와 같다.

4) 백(白)자 고대 지명 표기의 예

(1) 카라(刀臘:Kara)표기

(ㄱ) 구택현본고구려도남현경덕왕개명금배주
雋澤縣本高句麗刀臘縣景德王改名今白州
[「삼국사기」지리지]

위(ㄱ)의 도남(刀臘=雋澤=白州)의 관계에서 도남(刀臘)의 도<訓·갈>는 차훈자의 예이다. 남(臘)의 차음(借音)에 의한 제2음절이 첨가된 도남(刀臘)은 Kara의 표기로 보인다. 그리고 구택(雋澤)은 차음(借音)에 의한 Kctc의 표기로 보이니 이는 도남의 표기와 어형(語形)이 비슷하다. 이로 미루어 '배주(白州)'의 백(白)이 K-두음(頭音)을 가진 KVRV어령임을 알 수 있다.

(2) 고로(都烏:Koro)표기

(ㄴ) 백오현본고구려옥오현경덕왕개명금평창
白烏縣本高句麗都烏縣景德王改名今平昌
[「삼국사기」지리지]

위(ㄴ) '옥오·백오·평창[都烏=白烏=平昌]'의 관계에서 「문체날 옥」자로서 또는 「빛날 화(華)자」와 한 가지로 Koro/Koro의 표기로 보이며 오(烏)는 제2음절 모음의 표기로 2자 지명 형식에 맞춘 것이다. 그리고 '평창(平昌)'의 평[平은訓이 고로조(調)]이고 창[昌은 기리-漬]과 통한다. 그러므로 '평창'

은 KVRV 중복 표기로 생각된다. 이를 보아서 '백오'의 백(白) 차훈에 의한 Koro의 표기이고 오(烏)는 그의 제2음절 모음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설아(白) 표기

현행어 회다(白)는 조선조 초기 국어에서 회다/회다 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와 「역어유해(譯語類解)」에 [설아(白)]가 나타나 있으니 이는 일본어의 [Siro (白)]와 비교된다.

설아몰 (白馬) <老 下 8>

설다몰 (白馬) <譯 下 28>

(4) 어형의 변화

위에서 고찰한 바로써 백(白)의 고대어가 Kara.Koro어형임을 알 수 있다. 이 어형은 어두 K-음이 마찰음화 하여 아래와 같이 어형 변화를 하게 된 것이다.

Koro-i)Xori)hori)həi)hii↔(회. hii. 白=한국어)

Koro)Xoro)horo)Soro)Siera[설or. Siro 白=일본어]

Koro-i)Xori)Xori)hori)həi[히-白=비치 히 <月釋>]

Koro-Po-ta)Xor-P-ta)Sol-P-[a (솔다.白)]

四) 월(月)자의 어음 탐구

(1) 월

어휘	형 태	재구성	방언	중세중앙어
白	동명사	흰	흰	흰
月	명사	돌	달	돌

(2) 달(月)음의 어원

달(月)을 '설(契)'이라 기록한데서 몽고계 설로 봄. 고려가 개성에 도읍하므로 신라땅에서 쇠잔한 고조선 고구려 지역에서 쓰이

던 통구스계 몽고계 어휘가 한때 되살아났다. 그 예가 12세기초의 「계림유사」에 반영되어나왔다. 계림유사에서는 '월왕설(月曰契)'이라 했으니 생각컨대 돌(突)자를 잘못 하여 설(契) <契誤突>이라 안했다면 몽고말 Sara(서라)설)Syer(시얼)설)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달(月)을 tingal에서 왔다는 드라비다어 계,돌로 봄. 백제지명에서 '훈치(馴雉=鷄)'와 '감(甘·돌-)'을 유음대비시켜 나타낸다. 이것은 경상도 방언과 흡사하게 tar로 실현되어 있다. 이말은 신라지명에서도 '계림·월성·경주(鷄林=月城=慶州)'를 대비시킨 데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즉 'tar(鷄·신라)'을 'tar(月·신라[tingal=月]및 taah[慮. 고려])'에 유사음을 대비시켜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돌(鷄)'을 알타이어에서 takiya라고 하는데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들의 어원은 들(懸)달이라 했는데 지명에서는 돌·진(突·珍)이 월(月)자로 대역(對譯)하였다. 그러므로 신라 유리왕때 악명「돌아악(突阿樂)」은 돌아(달아)에 지나지 않는다. 백제지명에 산견되는 달·달랑-돌·진·영·(月·月良·突·珍·寧)자의 원어는 돌·들이다.

(3) 달(月)자의 고대지명 표기

돌의 고대어를 모색하기 위하여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로 한다.

영암군본백제월나군 (靈巖郡本百濟月奈郡)

마령현본백제마돌현 (馬靈縣本百濟馬突縣)

고령군본대가야국 (高靈郡本大加耶國)

월 나 영 암 마 령 마 돌 고 령 군
月 奈 靈 巖 馬 靈 馬 突 高 靈 郡

월(月)의 중기어는 돌이다. 월(月)은 훈(訓)

으로 신지명에서는 영(靈)과 대응된다. 영(靈)의 훈(訓)은 다음의 예와 같이 돌(突)진(珍)으로 표기되었다.

마돌현 일운마진 마령 일운마등량
馬突縣 一云馬珍 馬靈 一云馬等良

여기에서 ‘돌·진’(突·珍)’의 호용이 성립된다. 재구음(再構音)에서 볼때 ‘돌(突)’을 기준으로 하면 ‘진(珍)’도 tar을 전사(轉寫)한 것으로 볼수 있다. 고려사의 ‘등량(等良)’은 tala인바 이 축약형이 tel이다. 等 ter lang에서 ng이 소거되니 등량(等良)은 tala>tal>tar로 되어 tar과 백제의 tar과도 상통된다. tor(等)의 중기에는 ‘돌’로 되어 있다. 이들도 기실은 등(等)과 어원적으로 관련성이 있다.

이 삼국사기 지명으로 미루어 백제 때에도 이 월(月)은 돌로 호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월(月)자 산명 표기

현재의 월자치명은 음독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 월(月)자의 15세기 훈(訓)이 돌이니 고대 어형이 toro이 있었다. 이러한 유흔들은 월자산명들에서 월(tar)과 산(山:tor)을 표기한 부분에서 첩어(疊語)현상을 볼수 있다. 옛날에는 산을 달(達)이라 했으니 돌(月)의 달 역시 동음이였기 때문이다. 예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월자산명에서 산명들의 여러형태를 찾아보기로 한다.

(ㄱ)돌형

마령현본백제마돌현영암군본백제월나현
馬靈縣本百濟馬突縣靈巖郡本百濟月奈縣
영(靈)을 tor에 그리고 백제 tar(月)에 대비시켰다. 월(月)은 훈으로 개신지명의 영(靈)과 서로 대응한다. 월(月)의 중기에 들을 영(靈)의 훈인 돌(突:tor)을 차용(借用)

하여 표기 하였다.

(ㄴ)다리형

다리산→월이산(月伊山:다리산)충북 옥천군 이원면

다리성→월악(月嶽:다리성)충남 논산군 양촌면

(ㄷ)월형

월봉산→월봉산(月峯山):경남 거창군 함양군

월악산→월악산(月嶽山):충북 제천군 한수면

월출봉→월출봉(月出峰):강원 간성군 회양면

(ㄹ)삼태형(三態形)

불형(光明形)백월산(白月山):홍성군 홍성읍

해형(日形)일월산(日月山):홍성군 홍성읍

월형(月形)월산(月山):홍성군 홍성읍

(五) 산(山)의 고대지명 표기

산(山)을 뜻하는 예를 찾아 보기로 한다.

토산현본고구려식달

土山縣本高句麗息達[「삼국사기」지리지 2]

부산현일운송촌활달

釜山縣一云松村活達[「삼국사기」지리지 4]

공목달일운웅섬산

功木達一云熊閃山[「삼국사기」지리지 4]

이산성본가시달홀

梨山城本加尸達忽[「삼국사기」지리지 1]

tag(山·古 터키)

tag(山·古 몽고)

dobcær(小山·고몽고)[※~>dowora>dora>

t^r>tardele(山 만주)]

tatal(高原 드리비다-Ta)[※titaruc小山]>

itar>take(嶽 일본)]

위의 비교어로 보아서 산(山)을 tar(達·定母曷韻)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산(白山)’과 ‘백산(伯山)’은 다함께 우리말 ‘Pak-Tar(박-달)’의 이기(異記)일 뿐이다.

Paktar을 취음(取音) 석독(釋讀)한 것이 ‘백산(白山)’‘백산(伯山)’이다. 이는 단(檀)의

새김인 박달과 완전 일치하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공교롭다고 아니 할 수 없다.

(六) 「백월(白月)」을 「불기달」이라 하는 이유

백(白)은 「붉은」「선명함」「빛남」의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붉>붉은」이 「붉은달」하면 명월(明月)이 되니까 문법적으로 순조로운데 「불기달」하면 난점은 「불기>불기」가 달을 수식하는 연체형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불기는 연체형은 될 수 없다. 그러나 불기는 연체형은 될 수 없을 망정 명사형으로서 형용사적 위치에 설 수는 있다. 우선 불기란 말이 「又불기·회불기·돌불기(始明·日明·月明)」등에서와 같이 「용언+」의 명사형을 이룰수 있음은 당연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백고흥 국인이 장자발기불초 공립이이모위왕
伯固薨 國人以長子拔寄不肖 共立伊夷謨爲王

백고가 돌아 갔을 때 나라사람이. 장자「발기」의 「불초」함을 이유로 「이이모」를 공립하여 왕을 삼았다. 『삼국사기 권16 고국천왕(故國川王)』

여기에서 「발기(拔奇·明)」는 「불기」가 된다. 이런 예는 원효의 성지 「발지(發智)」는 「불디(불기의 원음)」이다. 원효(元曉)는 「새배」혹은 「又불기」이 있다.

「불기돌」의 어의는 「돌불기」의 전도어 곧 「붉이의돌」이니 언제나 명월이면 「붉이돌」아님이 아니다. 이렇듯 강조적으로 특히 「불기돌」이라 함은 주로 보름달을 가리킨다. 「보름달」과 「불기돌」은 그 성어적 구성이 실로 간 불용발(間不容發)의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다는 표현이 된다.

七) 백월산(白月山)의 지령적위상(地靈的位相)

백십자·월십자(白十字·月十字)의

중앙에 위치한 백월산

「불기달」이라함은 보름달을 가리킨다. 홍성에 있는 백월산이 왜 불기달(光明月)이며 보름달을 상징하고 있느냐를 밝히고자 한다. 홍성에 있는 백월산(白月山)은 백십자(白十字)의 중앙에 취치하고 있다는 천의(天意)의 소치를 추찰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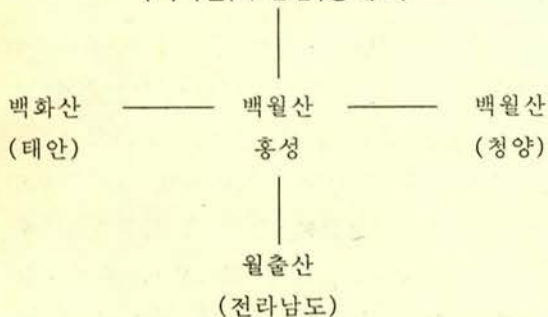
한국 서해안에 높은 산이 셋이 있다. 황해도 의 월산과 전남 영암에 있는 월출산 그리고 서해안 중앙에 오성산(五聖山:一云鳥樓山)이 자리하고 있다. 불기달의 뿌리가 되는 백월산은 오성산 중심맥의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건방(乾方:西北方)에 있는 산이 구월산(九月山)이다. $3 \times 3 = 9$ 해서 노양(老陽)이 된 구월(九月)의 산이다. 그래서 구월산 상봉을 백악산(白岳山)이라고 한다. 다음은 한국 곤방(坤方:西南方)에 있는 산의 월출산(月出山)이다. 이름그대로 월(月)이 시생하며 차차 상현(上弦)의 위치로 상승하는 달이다. 그래서 소음(少陰)의 달이다. 그 대(代)가 되는 산이 구월산인데 이 산은 음력 23일 경의 하현(下弦)의 위치에 있다. 그 중앙에 있는 산이 태방(兌:正西)에 자리 잡은 홍성의 백월산이다. 이산은 상현, 하현의 중앙에 있으니 보름달이요 만월이요 쟁반같은 흰달이니 가장 밝은 달이다. 가장 밝은 보름달 아래에서 모든 생물은 생식의 기능을 발휘한다. 거리 위도상으로 보아도 구월산과 월출산의 꼭 가운데 있으니 중천에 뜬 달이요 보름달이니 그 회고 광명됨이 「백월산(白月山)」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오성산(鳥聖山)의 부두처(符頭處)에 있는

산이 청양의 백월산이다. 차령산맥은 사람에게 비유하면 골반뼈에 해당한다. 이 골반뼈에서 사람의 신장맥이 발현되듯이 차령산맥에서 분기하는 백월산은 오성산을 잉태한다. 이 오성산은 내포평야를 형성하는 신장맥의 뿌리가 된다. 신장맥이 달리는 여러곳에 명산이 있는 가운데 그 중앙에 있는 산이 홍성의 백월산이다. 여기에서 이어져 용봉산이 생기고 그 중앙에 덕산의 가야산(加耶山)을 배출하여 유명한 자미원국의 명당을 형성한다. 그 여기가 태안반도 (서해안 끝)에 가서 백화산(白華山)를 토(吐)해 낸다.

이상을 요약하면 동쪽에 청양의 백월산이 있고 서쪽에 태안의 백화산이 있다. 동서로 달리는 신장맥의 중앙 위치에 홍성의 백월산이 위치하고 있다. 이 삼백(三白)의 산들은 충남 차령산맥에서의 위선상(緯線上)에 일직선으로 배열 되었다. 또 한 선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서해안을 종단하는 구월산과 월출산의 그 중앙에 홍성의 백월산이 위치한다. 이 선을 가시적으로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백십자 월십자의 도식도
(백악산)구월산(황해도)



영암의 월출산을 빼고는 4곳이 모두다 백(白)자 지명이니 백십자의 중앙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세로는 세곳의 월자산과 동쪽의

백월산 해서 4개의 월자산이니 월십자(月十字)와 백십자의 중앙에 홍성 백월산이 존재한다.

1) 월산명(月山名)의 3태 (三態)

〈月山・白月山・日月山〉

(1) 지지에 나타난 월산명 〈得體〉

- 세종지리지(世宗地理志)월산(月山)
- 해동산경(海東山經)월산(月山)
- 대동여지도원본(大東輿地圖原本)월산(月山)
-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월산(月山)
- 전국지리지(全國地理志)월산(月山)
- 여지승람(輿地勝覽)월산(月山)
- 호서읍지(湖西邑誌)<1871>월산(月山)
- 결성현지 및 읍지(1~5권)월산(月山)
- 홍성읍지(洪城邑誌)<=>월산(月山)

(2) 지지에 나타난 백월산명 〈得化〉

- 홍성읍지(洪城邑誌)<一>백월산(白月山)
- 홍성읍지(洪城邑誌)<三>백월산(白月山)
- 홍성읍지(洪城邑誌)<四>백월산(白月山)
- 홍성읍지(洪城邑誌)<五>백월산(白月山)

(3) 지지에 나타난 일월산명 〈得名〉

- 홍성군지(洪城郡誌)1980.12.15(일월산)日月山
- 한국지명총람(1974. 11. 30)일월산(日月山)
- 지도 1/25,000・1/5,000 일월산(日月山)

(4) 도지(道誌)에 나타난 월자(月字)계 산명들

- 월산(月山)홍주의 진산<진산이야야 산신이 정재한다.>
 - 월운산(月雲山)홍성군・홍동면 <초룡산>
 - 월조산(月照山)당진군 면천면
 - 백월산(白月山)청양군 운곡면
 - 백월산(白月山)보령군 청라면
 - 명월산(明月山)보령군 미산면
- 위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월산(月山)은 홍성의 월산뿐이다.

팔명 학교 (八明學校) 를 찾아서 ~2~

제 1 장 호명 학교(湖明學校)

주 목 로

(홍주향토문화연구회원)

I 설립자 김좌진(金佐鎭)

설립자 김좌진 장군의 연보(年譜)에 의하면 1889년<102년전>음 11월 24일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에서 병자호란(丙子胡亂)때 <약300년전> 척화신(斥和臣)으로 강화성에서 순국절사(殉國節死)한 선원(仙源)김상용(金尙容)의 10대손 김형규(金衡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니 이름은 좌진(佐鎭)자(字)는 명여(明汝) 호(號)는 백야(白冶)라 하였다.

1893~95년 <3~6세>

세 살때 부친상을 당하고 한산(韓山)이씨(李氏)편모슬하에서 고달픈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어릴때부터 성품이 호방(豪放)하면서 영민(英敏)하고 기골(氣骨)이 웅장할 뿐만아니라 뛰어난 의지(意志)와 날랜 용력

(勇力)으로 듣는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하는 허다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을뿐 아니라 어린 시절에 동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쟁놀이에서 전법(戰法)을 익히고 언제나 작전(作戰)의 우두머리로서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늙은 모습은 비록 어린나이지만 하늘이 내려준 사람의 됨됨과 기질을 넉넉히 보여주었다.

더구나 1896년 <7살>에는 한문 사숙(私塾)에 취학하면서 삼국지(三國志),수호지(水滸志) 등을 즐겨 읽고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억강부약(抑強扶弱)의 뚜렷한 정신적 기치(旗幟)아래 특히 의협심(義俠心)이 강한 소년기를 보내면서 위의당당(威儀堂堂)한 사나이 다음게 준마(駿馬)를 타고 긴칼을 휘둘르는 무예(武藝)를 동경했다¹⁾ 고한다.

드디어 1904<당15세>에 이르러 형 경진

(景鑑)이 출계(出系)하자 소년가장이 되어 생계를 맡아 꾸려가면서 당시 극도로 문약(文弱)에 빠진 이조 말기적 인습(因習)에서 벗어나려는 신념으로 어머니와 스승의 만류(挽留)에도 불구하고 육마(育馬)를 타고 부근 산 기슭을 질풍같이 달리면서 초엽(草葉)을 베는 것을 유일한 쾌거를 알고 스스로 무예를 익히는데 열중할 때 하늘이 맺어준 연분을 만나 오숙근(吳淑根) <13세>과 결혼하게 되었다.



백야 김좌진 장군

II 한국의 노비(奴婢)해방.

1905년 <당16세> 순수한 젊은이의 투철한 인간애와 정의감 때문에 인권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마음 속 깊이에서 터져나온 개혁사상의 꽃이 결실되어 하루 아침에 큰 잔치를 베풀고 50여호에 달하는 누대(累代)의 노비들에게 술과 안주를 권하고 노비 문서를 불사른 후 재산 일부까지 나누어주며 그들을 풀어 자유인으로 석방하여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실로 규모는 작지만 그 정신에 있어서는 인류 백대의 사표(師表)로서 흑인노예 400만을 해방시킨 에이브러햄 링컨(Lincoln.

1809~1865)의 흑노해방선언(1863)에 견줄 수가 있다.

더욱 링컨은 21세 때에 노예시장을 보고 너무도 크나큰 충격에 연민의 정과 견딜수 없는 울분에서 자기도 모르게 격분하여 이를 갈고 주먹을 불끈 쥐며, 뜨거운 눈물을 먹음고 그런권리가 내 손에 있다면 저 인도에 어긋난 악풍폐습(惡風弊習)을 당장에 타파하겠다고 부르짖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 30년이란 긴 세월동안 준비하게 하신 후 그로하여금 노예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대통령으로서 이를 마무리하게 하셨으니 그러자마자 곧 그는 순국(殉國)하고 말았다.

즉 이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생명의 제물과 지나간 한 세대의 세월이 소요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가 그해 서울로 올라가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III 호명학교(湖明學校)의 설립

1907년 <당18세> 갈산면 상촌리(上村里) 325번지에 김병학(金炳學)의 후원을 얻어 90여간의 고택을 내놓고 작은 집으로 옮긴 다음 이집을 개조하여 "호명학교"를 설립하고 직접 학교장의 책임을 지고 지방의 청소년 자제들에게 개화기의 뜻깊은 신학문을 교육하였다.

이것은 에머슨의 교육론에서 밝혀준과 같이 "배울 필요 없는 사람없고 올바르게 배워 사람되지 못할 사람 없다."했으니 그 위에 민족의 독립과 조국의 광복정신을 불어



백야 김좌진 장군 동상

놓고져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해 1908년<19세>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란 장학단체까지 설립하고 유망한 젊은 학도들을 선발하여 서울 등 각지에 유학(留學)을 보내어 국가적栋梁지재(棟樑之材)를 길러내고자하는 크나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듯 하다.

이는 동시에 우리 홍주(洪州)고을에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신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구국(救國)운동의 발상지(發祥地)로서 우리 고장 민족교육의 효시(嚆矢)가 되었다.

특히 이 때에 사용한 "산술학(算術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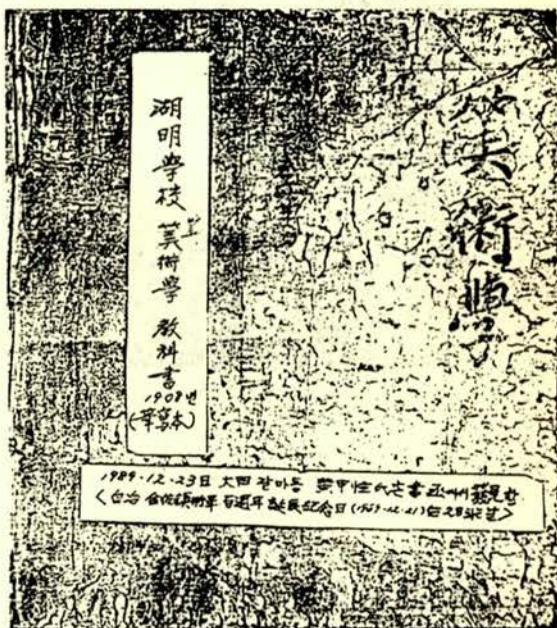


호명학교(湖明學校)전경

본(敎本)은 산술학회편(算術學會篇)으로 사

립학교령(私立學校令) 공포시(1908.8)필사(筆寫)하여 인수한 책으로서 직접 본교의 교재로 사용했던 것이며, 이것은 1989.12.23. 대전 갈마동 황갑성(黃甲性)씨댁 서함에서 배동순 회장이 추적 끝에 발견한 것으로 공교롭게도 백야장군 탄신 백주년기념일 이틀 되는 날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그때 당시 사용한 교재를 유물로 우리가 보존하게 되었다는 천행의 사실에 깊이 감사하면서 더욱 고증(考證)을 발굴하는데 힘쓰고자 한다.



산술학(算術學)교본(산술학회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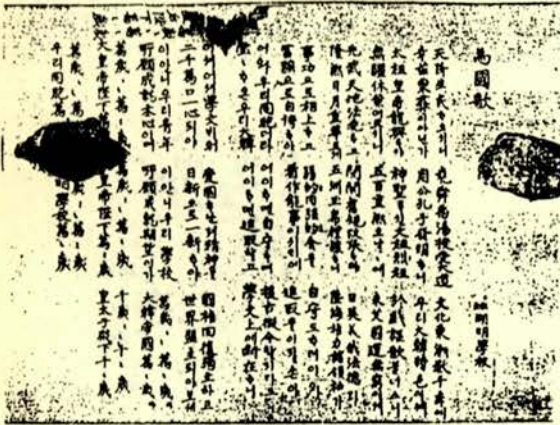
현재 간직한 자료

- 1) 호명학교 연혁.(1907~1911)
- 2) 동 교사 전경 사진
- 3) 갈산학교 1~3회 졸업사진.<3매>
- 4) 호명학교 위치도와 김좌진 생가도.
- 5) 호명학교의 평면도.
- 6) 호명학교 당시 국가(國家)
- 7) 호명학교 당시 공문서

훈령학발(訓令學發)제 10 호

8) 당시 사용한 유물들

책상, 벼루, 화로(거울용), 파손된
괘(卦), 고두래 돌, 학교종, 계석(階石)등
백야 장군의 청산리대첩과 순국 그리고



호명학교 당시 국가(國歌)

위대한 구국정신 등은 그의 전기에 상세하
기에 이는 생략하고 호명학교를 전후한 부
분만을 약기했음을 양지하기 바라며 본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뿌리 깊은 나
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
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뜻의 말이
도해(圖解)되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역사
4000년" 일러두기에는 "역사교육은 국운을
좌우하는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고정
적 이론과 유동적 생명과의 끊임없는 싸움
이라'고 했다.

그 좋은 본보기로 이웃나라 일본(日本)이
태서(泰西)문명을 받아들이는 개화기 (1870
년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새 교육을 위하
여 북해도에 삿보로 (札幌)농업학교를 세
우면서 신일본의 인물교육에 착수했다. 특히
소수 정예 (精銳)주의로 미국의 크라크(wil
liam.s.clark)교수를 초빙하여 원치도 않는
성서의 진리를 바탕으로 철저히하고도 최선의

인물교육을 할 수가 있었으니 일본의 정신
적 지주가 그 때에 마련되었다고 한다. 특히
그들에게 남기고 간 한 마디의 명언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 고 외친 그대로 그들은 이 말씀을 가슴
에 새겨 새 일본을 이끌어 갈 영도자의 정
신적 지주로서 우찌무리(內村) 미야베(宮
部) 오-시마(大盜) 등 쟁쟁한 인물로 종교
와 교육계의 뿌리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를
비롯하여 남강(南崗)이승훈(李承薰) 그리고
우리 고장의 지산(志山)김복한(金福漢)과
만해(萬海)한용운(韓龍雲)까지를 포함하여
생각할 때 우리 홍주 고을에는 위대하고도
충의(忠義)의 인맥을 꾸준히 보내주심 깊
이 감사할 뿐이다.

위요 첨부

- 1) 김좌진 장군 사진
- 2) 호명학교 교사 사진
- 3) 산수교과서 복사(표면)
- 4) 위국가(爲國家).

홍성군내에 있는 城地 (上)

박 문 신
(홍주향토문화연구회원)

모든 문화재가 그렇치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보존이 소홀해지고 보존의식이 희박해져 함부로 허물고 손상을 주는 예가 허다하다 이에 홍주인들은 우리 고장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의 소재지중 알고 보존에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기 지난번은 최고운의 금석문 유적지를 소개 한데 이어서 이번엔 군내에 산재해 있는 성지(城地)를 사학가 박성흥(朴性興)씨의 군지에 등재된 내용을 간추려 다음에 적어보기로 하겠다.

홍성군 관내에는 옛 성터가 30여 곳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토성과 ②석성(石城)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구조된 시대는 대충 토성은 마한무렵 석성은 백제 이후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토성의 특징은 그 대부분이 하천 혹은 해안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높이 10~30m 정도의 독립된 구릉위에 있고 부근에서 흔히 지석묘의 빗살문토기편 등 뿐만 아니라 무문토기류와 신석기류 까지도 채집됨으로 신석기 시대 이래 부족집단의 주거지였음을 엿볼 수 있다. 토성의 대부분은 작은 규모의 테뫼를 이룬다. 그래서 전쟁 방어용 성이라기 보다는 제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이다.

관내 토성군에서는 지역성을 엿볼 수 있다. ①결성지방의 신금성을 중심으로 한 것 ②장곡면 광성리 지방의 참방이성을 중심으로 한 것 ③홍성읍 고모리(구룡리)의 고모루성을 중심으로 한 것 ④삼교읍 수촌리의 만쟁이성을 중심으로 한 것 등이다.

〈주류성 위성도〉



신축성중에서 그 연혁이 알려져 있는 홍성읍성, 결성읍성, 여양현성, 고구현성 등 고려시대 이래 행정의 중심이던 읍성들은 토성의 지역성, 중심성이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구체적 기록이 없어 그 사적을 알 수 없었던 장곡면 대현리와 산성리 소재 학성(鶴城)과 석성은 임존성(任存城)과 더불어 백제 부흥전의 중요 유적임이 확인하여 졌다.

임존성은 금마면과 대흥면과 광시면의 경계에서 상접할 뿐 아니라 그 역사성은 홍성군내 소재 유적들과 끊을 수 없는 관련성이 있다.

홍주성지(洪州城地)

충남 서북부에 자리한 홍성군은 해안선을 연결한 서해의 관문이요, 도성의 인후로 자고로 국방의 요새일 뿐 아니라 서산군 태안반도에 있는 안홍항은 해로를 통하여 멀리 중국을 왕래하던 요지로 서북부 일대의 교통 중심지이다.

백제가 웅주와 부여에 정도(定都)하였을 때는 물론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는 동안

홍주성을 중심으로 많은 크고 작은 산성과 인접, 해미의 성을 지각(枳殼)성과 석성 그리고 외곽에 다시 돌을 파서 물을 돌린 것은 홍주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추측케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처음 이 성을 쌓은 기록은 없고 최초로 성의 주위가 1,300척의 토성으로 성첩(城堞)이 400에 불과 하였다 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 때에는 백월산 중북에 해풍현 고을이 있었는데 현재의 위치로 고을을 옮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때에 성을 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뿐이다.

그후 순조(1800~1834)때에 한계수(韓桂洙)가 수성하였다는 기록과 그 당시 홍주목사였던 이현규와 영장 김계묵이 방백등과의논하고 순조 23년(1822) 8월에 성을 2,350척(구척)으로확장, 보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고종 7년 경오에 홍주목사 한응필이 1,830척에 560척을 증보하며 석성으로 석축하는 동시 650개의 첩(堞)과 130개의 치(雉), 2개의 곡성(曲城), 그리고 우물 4개소 연못을 신설한 다음 동서에 수문을 두어 서문천의 물을 끌어 서편 수문에서 동편 수문을 거쳐 남문천, 금마천으로 흘러가게 하고 동서북 세 곳에 문을 다시 세우고 남문은 홍예문으로 세웠다. 경오년 2월 27일 준공한 다음 조정에 보고하여 동년10월 15일에 대원군이 휘호한 문액(門額)을 받았는데 동문은 조양문(朝陽門) 서문은 경의문(景義門) 북문은 망화문(望華門)이라고 대원군이 명명하였다. 남문은 문루가 없고 나머지는 모두가 문루가 있고 조양문의 문비는 철판이었고 서북 남문의 문비는 판목이었다.

성 주위가 최장1,772m에 달하였으나 많은 구간이 왜인등에 의해 훼손되고 810m의 구간만이 남아있고 성내에 있던 관아의 건물들이 36동에 이르렀으나 그중 조양문, 홍주

아문, 동헌, 여하정 등 4동의 건물만이 현존하고 있다.

해 풍 현 성(海豐縣城)

백월산의 동북 중북 산해암 부근에 있는 석성이다.

여초 후백제의 견훤의 대군과 왕건의 대군이 결전을 하여 여군(麗軍)이 승전을 거둔 곳이다. 해풍현은 고려 때의 현으로써 6대 성종 12년부터 명종 25년까지 202년 동안 그 관아는 홍성읍 원산리 관청재 부락에 있었다고 한다. 주위가 9,400척이었다고 한다.

월 산 산 성(月山山城)

홍성읍 서쪽에 있는 홍주의 주산인 월산(해발 394m)이 있다. 옛날에는 옥산(玉山)이라고도 하였다. 월산 산정에 위치하는 산성으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구항면 오봉리에 속한다. 일부는 토축 일부는 석축이다. 그 대부분이 붕괴 되어 보수가 필요하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마한시대 이래의 성이 아닐까 하지만 후백제의 견훤군이 이용한 성으로서 월산의 동북 해풍성과 더불어 고려 왕건과 패권을 다툰 성이라 생각된다. 여지승람에 주위가 9,100척이었다 한다. 산정에 목사 홍가신의 목상묘가 있다.

고 모 루 성(古牟樓城)

속 칭 : 고 무 랭 이 성

홍성읍 구룡리에 있는 토성으로 AD.396년(丙申)광개토왕은 친히 수군을 거느리고 마한땅을 침략한적이 있는데 호태왕비문(好太王婢文)병신년조의 고모루성이 이에 해당한다.

660년 7월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패망하자 온술부여자진(恩率扶餘自進)이 최초로 조국부흥의 외병을 일으킨 일본서기

제명기(音明紀)의 고마노리성이 이에 해당한다.



고마노리성(古麻奴利城)은 웅진(지금의 공川)이다.

홍성읍 구룡리에 위치하기에 구룡성이라고도 하였고 '구룡→구령이→배암' 즉 사성(巳城)이라고도 하였다.

홍양천이 금마천과 합류하면서 삼각주를 이루는 곳에 섬같은 구룡이 있고 그곳에 축조된 이중토성이다. 출토유물로보아 마한 이래의 유적임이 분명하다.

663년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자 당은 이성의 동쪽 1km쯤에 위치하는 태봉산성(泰封山城):〈唐城〉퇴피산성:금마면 송암리 조재를 중심으로 지심주(支尋州)를 설치하고 홍주지방을 통치하였다.

홍주는 이때부터 내포지방의 행정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약 1,320년 전 일이다.

'지심'이란 깊은 물언덕에 둘러싸인 성을 뜻한다.

1893년경 고모루성 주변의 금마천과 홍양천의 하안정리공사가 있기 이전의 상황은 글자 그대로의 '심'자에 해당하는 하천이었다. 모래하안도 초안도 없는 그야말로 낭떠러지 하안이어서 한번 냇물에 빠지면 기어나올수도 없는 깊은 물언덕—'심'에 해당하는 하안이었다.

과연 한자를 창조한 중국인 그 당시 명명한 지명이었다고 생각한다. 백제의 옛땅을 점거하고 있던 당은 11년 후 신라에 의하여 축출되고 말았다. 신라는 이 지방 행정의 중심을 동쪽 30리에 위치하는 임존성(현재

대흥임존성)으로 이동하였다.

태봉산성(泰封山城)

일명 퇴피산성 또는 당재, 당성(唐城—금마면 송암리 산성)을 말한다. 금마면 송암리와 장성리의 경계에 위치하는 태봉산(높이 140m) 산정의 서거축성(石築城:일부는 토축)으로서 둘레는 약 400간(間:2,400尺)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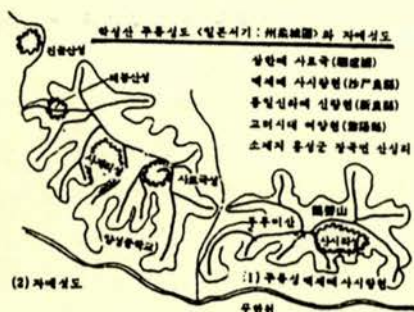
서쪽 약 2km에 고모루성이 있고 동쪽 약 6km에 임존성이 있다. 이 모두 AD.660년 7월, 백제 패망 직후부터 4년간 계속된 부흥전의 중요 거성이다.

주류성(周留城)

AD660년 7월 신라 무열왕 김춘추와 당장 소정방의 연합군에 의하여 수도 사비성(지금의 부여)과 구도 웅진성(공주)이 함락되니 백제는 멸망하였다.

소정방은 의자왕을 비롯한 왕족 50여명과 민간포로 1만2천명을 이끌고 9월3일 해로로 개신하였다. 그러나 백제 유민들은 소정방이 출발하기 이전에 이미 임존성과 홍성 고모루성을 중심으로 항전을 전개하였다. 당군은 대병력을 임존성으로 보내어 이의 진압을 도모하였지만 귀국 일정에 쫓겨 성공하지 못한 채 귀국하고 말았다. 당은 패망국 유민의 항전인지라 이를 알본데다 공주와 부여에 1만 당병과 칠천 나병(羅兵)이 주류하고 있음을 믿고 조기 철군을 한 것이 큰 실수였다. 초기에 임존성을 중추로 하던 부흥군의 항전은 곧 모든 여건이 유리한 주류성 쪽으로 그 거점이 옮겨져 거센 반격이 4년간 계속되니 663년 5월 당 고종은 손인사로 하여금 7천 육병(陸兵)과 170척의 수군을 증파함과 동시에 나군 5만명의 출정을 요청하니 문무왕의 5만 대병이 주류성 공략을 감행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663년 9월 7일 주류성이 풍왕 부재중에

합락하니 주류성에서 항전을 하던 백제의 지도층은 “백제”라는 이름은 오늘로서 끝이 났구나. 언제 다시 조상의 분묘의 땅을 밟아 볼 수 있을 것이냐. 눈물지며 「침복기성: 참뱅이—장곡면 광성리」에 머물고 있던 처자식을 거느리고 「무태의 테레」성에서 일본군 선편으로 일본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이렇듯 주류성은 백제의 종말 기사에 있어 중요한 유적이건만 그 위치를 헤아릴 수 있는 사료가 없어 그 위치 비정이 오늘까지 확인치 못한 실정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홍주 주류성을 고증함에 있어 광역성과 협의의 주류성으로 구분이 된다.



a) 협의(狹義)의 주류성이라 함은 장곡면 대현리의 학성산성과 장곡면 산성리의 석성산성(두리 뒷산), 그리고 이 두 산성과 숯고개(炭峴)가 포용하는 대부분 분지를 말한다.

b) 광역 주류성이라 함은 임존성에서 남쪽 장곡면 천태리의 천태산석성으로 이어져서, 장곡면 행정리의 소구니 산성으로 이어지는 외곽 방어산성과 이에서 이어지는 학성산성 이와 연속된 석성산성, 이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장곡면 광성리의 참뱅이성 까지를 포괄하는 요지를 말한다. 그러나 주류성의 위치에 관한 연구는 실학자 이래 워낙 다양하여서 본고의 이러한 주장이 사학계에서 용납되려면 철저한 고증이 필요함으로 다음 주류성고에서 상론키로 함

학성산성(鶴城山城: 두루미성)

홍성군의 남동쪽 구석에 위치하는 장곡면 대현리의 학성산 산정에 있는 백제 석성이다. 남쪽으로 상접한 석성산성과 더불어 백제부흥전의 중추이던 주류성의 주성(主城)이다. 북쪽으로 외곽방어선을 이루는 행정리의 소구니 석성과 접하고 북쪽 12km쯤에 봉수산 임존성이 바라보인다.

석성산성(石城山城)

일명: 山城里山城

장곡면 산성리에 위치하는 주류성의 주성 학성의 남단과 인접하고 양성중학교 서쪽 계곡이자 두리의 동쪽 산정에 위치한다. 동서서벽은 석축이고 남쪽은 역단층의 자연암벽을 성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명실상부하는 석성 산정의 동쪽 사면을 둘러싼 길이 1,800m의 석축성으로서 그 대부분은 붕괴되었다.

천태산 산성(天台山 山城)

임존성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천태산(장곡면 천태리)산정의 약수암 부근에 소구니 산성으로 이어지는 주류성의 외곽 방어성이 다.

소(蘇)구니 석성

천태산에서 학성산으로 이어지는 중간에 소구니 산성이 있다. 소구니는 행정리의 고지명이다. 이 역시 주류성의 외곽 방어 석성인 것이다. 소구니는 옛날 소씨의 나라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

文化財 探訪

田 潤

(洪州郷土文化研究會員)

文化財란 가치를 알고 모르는 차이가 하늘과 땅과 같은것이다. 寶物급의 고려자기를 고양이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울타리 밑에 버리고 때죽은 술병이 文化財 애호가의 눈에 비쳐질때 박물관 진열장안에 잘 보존되어 여러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두번째로 방문한 곳은 廣川邑 廣川里 신랑동에 소재한 廣東國民學校(校長 성낙양)를 찾게 되었다 許奎會員과 함께 현관문을 들어서니 현관옆 진열장 2개에 고려자기 이조자기 등 10여점이 진열되었을뿐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통일신라 토기골호

일행은 생각했던것보다 너무 초라해 실망이 앞섰다. 그러나 막상 교장실로 안내된 일행은 캐비닛안에 잘 보관된 李朝백자로(높이 35cm×지름 25cm)를 보고는 생기가 났다. 일명 고구마항아리라 불리우는 이 자기는 조금 입언저리가 떨어져 나가기는 했지만 수려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백의민족의 우리 조상들의 티없는 순박한 자태를 드러내며 일행을 반겨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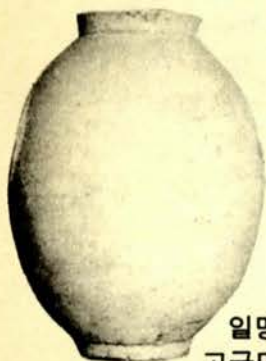
그런데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1975년경 광천에 거주한 盧載聲氏가 廣東國民學校 학부형으로 있을때 50여점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던 터라 성낙양 교장선생에게 다른 문화재들을 다른곳에도 있느냐고 물었으나 아는 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조 청화백자 항아리

교장실에서 내려와 사진을 찍기위하여 진열장문을 열고 보니 진열장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점의 문화재가 있지 않는가! 너무도 반가워 달려가 보니 모두 50여점이 되었다. 그중에는 귀중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 골호, 고려청자, 음각운학문대접, 고려청자인 삼문철사병, 이조백자호(젓병) 등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

고려청자 인삼문 철사병



일명
고구마항아리



이조文化財를 기증한 盧載聲氏는 廣川邑 廣川里 新岱부락이 고향이며 한때 강원도 춘천에서 극장간판을 그렸었다. 그러다가 廣川극장에서 간판을 그리던중 우연이 극장가 하숙집에 기숙한 서울서 골동품 수집차 내려온 골동품상을 알게 된것이 인연이 되어 고미술에 눈을 뜨게 된것이 60年代末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조자기 쓸만한것도 울타리 밭이나 마루밭에 내동댕이쳐 있든 때였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三圍 三채그림도 광구 통이나 대청선반에 병풍쪽으로 내딩굴던 때다 부지런히 배우면서 수집하기 시작한것이 본격적인 古美術商 된것이다. 아마도 洪城地方에서는 제일먼저 文化財에 눈을 뜬 先驅者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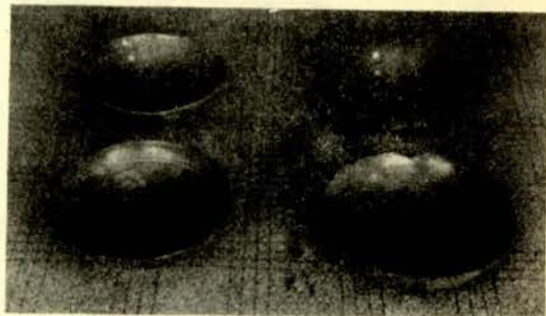
또한 노재성氏는 民畫 까치호랑이에도 일가견이 있었으니 천부의 자질로 이조초기부터 전해온 民畫 까치호랑이를 뛰어난 솜씨로 그리게 된것이다.

그래서 그는 노호랑이란 별호를 얻게 되었으며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방방곡곡

에서 노재성氏는 몰라도 廣川노호랑이라면 민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치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한참 전성기에는 장사꾼들이 까치호랑이를 그려갈려고 줄을서서 기다릴 정도였으며 한장을 또 10분에 그려주면 마르지도 않은 것을 서로 가져갈려고 야단들이었다.

재미있는 예로는 그가 옛날 장지(창조지)에 그린 까치호랑이 중에는 이조때의 眞品으로 인정이 되어 유명 박물관에 걸려있는 웃지못할 사실도 있다. 지금 그가 생존했다면 아마도 人間文化財 지정을 받고로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일찍 타계한것이 새삼 아쉽기만 하다.

광주 分院里에서 제작된 이조백자 소항아리는 젓꼭지가 달린 뚜껑이 그대로 있었다 맑은 우유발이 정말 아름답기 그지 없었다. 한쪽이 터진 청화백자, 석류문항아리는 도공이 불을 났때 터진 그대로의 완제품이었다. 그리고 이조 청화백자 국, 모란초는 한쪽에 국화꽃이 그리고 한쪽에는 모란꽃이 그리고 나비가 두마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정말 이조 화공들의 순수하고도 티없는 솜씨가 자랑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귀중한 청화백자 포도문 항아리는 귀가 좀 떨어져 나가고 금이 가기는 했지만 정말 귀한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자기는 청화의 문양에 따라 年代와 가치를 측정하게 된다 더욱이 같은 年代라도 귀하게 사용한 문양일때는 고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고려청자 대접

고려자기 6점중에 인삼문양 철사병이 있는데 철사문양은 귀한것에 속한다. 철사는 원래 쇠물을 심화시켜서 문양을 넣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학음각문 대접과 고려청자 백상감 대접이 귀중한 文化財로 평가된다. 고려자기는 무엇보다 비색을 제일로 친다. 백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바로 고려 사람이 할수 있는 비색 그것인 것이다.

土器류 10여점중에는 가야토기, 백제토기, 신라토기, 고려토기등이 모두 있었다.

그중에 통일신라시대 골호병은 완전할뿐 아니라 門簾 모양의 문양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유액이 그런대로 살아있는 신라토기병은 천년의 역사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출토품으로는 고려고분에서 나는 청동 수저와 젓가락 그리고 청동향합과 잔대 또 부장품으로 소꿉잔등 귀중한 자료들이 여러점 있었다. 그리고 선사시대의 돌로 만든 화살촉 이조때의 인두와 가죽신 자수로 된 수저집 옥단추등

마침 같이 동행한 허규회원이 위 문화재를 보관할 부족한 진열장 2개를 기증할 뜻을 밝히니 성낙양 교장선생님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숫자로는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학생들에게 산 역사교육을 할만한 작은 박물관겸 민속관이 될것이다.

文化財 목록

1. 이조 백자 호 (35×25cm) 고구마 향아리
2. 이조 청화 백자 포도문 호
3. 이조 청화 백자 국화 모란문 호
4. 이조 청화 백자 석류문 호
5. 이조 백자 박쥐문 병
6. 이조 청화 백자 호
- 7~10. 이조 백자 호
11. 이조 백자 젓병 (뚜껑유)

12. 이조 백자 제기
13. 이조 초기 백자 부장품
14. 이조 백자 음각 목단문 대접 (파손품)
15. 이조 백자 대접
16. 이조 백자 8각 기름병
- 17~18. 이조 백자 병
19. 이조 백자 기름병
20. 이조 백자 병
21. 고려청자 인삼문 철사병
22. 고려 청자 백상감 대접
23. 고려청자 음각 운학문 대접
- 24~25. 고려청자 대접
26. 신라토기 골호
27. 신라토기 문살문 토기병
28. 백제토기 향아리
29. 고려토기 향아리
30. 고려 토기 병
31. 가야토기 병
32. 고려 토기 병
33. 고려 토기 씨앗병
- 34~35. 고려 청동 합
36. 고려 청동 잔대
- 37~39. 고려 청동 출토 수저
- 40~41. 고려 청동 출토 젓가락
- 42~44. 선사시대 출토 화살촉
45. 이조 가죽신
46. 이조 죽절
47. 이조 인두
48. 망건
49. 이조 자수 수저집
50. 안경집
51. 후박단추
52. 이조 옥단추

洪州의 印刷文化 (2)

홍주에서 간행된 15세기 판본

一) 의옥집(疑獄集) 1418년 간행(1~99)

二) 역대장감박의(역대장감박의) 1489년 간행(10~229)

郷土文化研究會會長

裴 東 順

一) 의옥집

태종(太宗)18(1418)년 5월에는 홍주(홍성)에서 의옥집(疑獄集)을 간행하였다《三권 1冊》

의옥집(疑獄集)은 고려 문종 13(1059)년 2월에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海州)에서 새로 새긴 판본(板本)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의옥집은 11판

뿐이라 얇은 책인데 50년만에 도각하였다.

이 책은 이인영(李仁榮)의 장본(張本)에 있었다는 것과 이 장본을 본 미기(三木定: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朝鮮醫學史及疾病史)의 소개가 있으나 現存本은 찾을 길이 없다.

청분실서목(淸芬室書目)p167의 의옥집(疑獄集)해서(解書)부분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

다.

진화웅(晋和凝) 및 그 아들 몽(蒙)이 글을 지었고 출판은 세종18년 홍주(洪州) 땅에서 간행하였다. 책의 둘레는 4각을 단선으로 두루고 줄(行字)없이 11행 20자가 들어가는 데 높이의 길이는 18.5~19.5cm이고 너비는 13.5cm이었다. 책머리에는 『중서령 우복사가 형장사 노국공에게 증정하다』라고 적혀 있다.

화웅(和凝)이 의옥집을 짓고 그 서문은 차남 장사랑(將仕郎)이 쓰고 몽(蒙)이 부속(附續)의옥집 서(序)를 지었다. 몽(蒙: 元和)이 의옥서에 제(題)를 부친상권에는 1~29항에 이르기까지 의옥사(疑獄事)가 29건이고 또한권 의옥집이라 제(題)를 부친중권에서는 30~50에 이르러 옥사 21건이다. 장사랑 태수의 아들 몽(蒙: 元和)이 부속(附續)으로 지은 의옥집이라 제(題)를 부친 하권에서는 51~64해에 이르기까지 의옥사가 24건이다. 장사랑 태수 아들 몽(蒙: 元和)이 지은 책끝에 통선랑(通善郎)이라는 홍주유학교수관 전예(田藝)가 발문을 지었다. 1418년 영락(永樂)무술 5월에 홍주에서 출판했다는 간기가 있다.

그 간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병기되어 있다.

자헌대부(姿憲大夫) 충청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맹사성(孟思誠), 경력(經歷), 박조(朴操)양인의 판직을 열거하고 약술하였다. 그에 의하면 통판(通判)의령 남군규(南君珪) 집에 이 의옥집이 있음을 광주(廣州), 판목(判牧) 이상국(李相國)에게 알렸다. 이상국이 말하기를 임진년에 우리 조정이 쇠약함에 “무원록(無冤錄)을 쫓아 사옥(司獄)이 다 알아서 형벌하였느니라” 나의 의옥집을 보았나니 비록 그 무원록이 미급한데가 있다해도 이 의옥집을 미루어 보건데 그 애경하는 마음으로 사자에게 극진

한 별명을 하였느니라 형벌이 적중하였으니 성상의 흠훈(欽恤: 생업을 염려하고 위로함)의 마음과 호생(好生)하는 덕이 적지 않은 도움이었다. 그후 판목을 파(새기)는 일을 도모하여 널리 추진된 바를 감사 맹상국께 고하였다. 맹상국이 또한 즐거운 일이라 여겨 기술자를 모으고 구재(鳩材: 돈이나 재물을 건주며 모음)를 돈독히 하여 단시일에 성책하였음을 알려왔다. 책머리에 김한계인(金漢啓印)이 있고 인기(印記)끝에 먹글씨로 『김씨가에서 선조(1588)년에 고쳐 만든 책을 보관했다.(金氏家藏 萬曆戊子 改訂)』고 하였으며 살펴헤아리니 허봉(許篈)의 속선본(續增本)에 고서, 활요가 나오고 있다. 홍주책판(洪州冊板)에서 이 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 의옥서는 영천책(永川冊板)에 있다. 이 책은 중간본(重刊本)이다.

의옥집 간행이 세 차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1059(고려문종 13)년의 2월에 해주에서 판본을 올렸다……… 고려사 정인지 등 봉면선(奉增璇) 1972 p167
2. 1418(태종 18)년 5월 홍주에서 의옥집이 간행되었다……… 한족의서지 청분실서목
3. 1588(선조 21)년 의옥집을 개간(改刊)하였다……… 한국의서지 청분실 서목.

원래 판본(板本)은 보존만 잘하면 해인사의 대장경판과 같이 천년이상을 보존할수 있는 것인데도 지방관에서의 판본취급을 소홀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세종은 동국한지 3년만인 1421년 2월 5일에는 각관에게 서책의 판본을 소재관리(所在官吏)로 하여금 정돈비축케 하여 헤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명을 내린 사실이 세종실록에 두번이다 기록되어 있다.

二) 역대장감박의

1459(성종 20)년 10월 20일에는 장감박의(將鑑博儀)를 각도에 나누어 주어 개간(開刊)하여 널리 펴라고 하였다. 이때 충청도에 서는 홍주에 보내어 간행케 하였다. 고사촬요(故事撮要)에 보면 그 책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一 역대장감박의(歷代將鑑博議)궐본 일책

소재계(소載溪)편찬이고 권수는 10권이다. 그중 1권이 낙본이고 전후 수매가 떨어져나갔다. 목판 네 둘레가 쌍변이고 경계가 있어 11행 17자가 들어 가게되어 있다. 책의 높이는 19~20.2cm, 너비는 13cm이고 판구(板口)는 흑구(黑口)이다. 살피건대 허봉(許篈)의 속선본(續增本)인 고사촬요(故事撮要)에는 수원 홍주, 원주, 상주, 해주등지에 이 책의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다.

한국책판목록총람에서 다음사항을 인용한다.

수원(水原) 12 13 14 15
홍주(洪州) 12 13 14 15
원주(原州) 12 13 14 15
상주(尙州) 12 13 14 15
해주(海州) 12 13 14 15

현재 지방관 역대장감박의(歷代將鑑博議)는 아무데도 찾아 볼길이 없다. 그러나 심우준저(沈偶俊著)내사본 고문서연구(內賜本古文書研究)에 보면 세종19(1437)년간 갑인자본(甲寅字本)역대장감박의(歷代將鑑博議)등이 내사본(內賜本)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홍주에서 출판된 원본이 되는 이책[개수본]에서 해제(解題)를 요약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이 「역대장감박의」는 우리나라에 있는 「춘추좌전직해(春秋左傳直解)」보다 96년이 나 앞선 것으로 현존 최고(最古)의 내사본

(內賜本)이라는 것을 전기(前記)해 둔다.

1. 「역대장감박의(歷代將鑑博議)」 해제(解題)
2. 대계(戴溪)의 「역대장감박의」외제(外題)에는 「역대장감박의」라고 묵서되어 있고 표지 다음에는 지정을사(至正乙巳: 공민왕 14, 1365)년 추(秋) 8월 정해일 양유정(楊維禎)의 서(序)가 있고 별면(別面)에는 소흥신유(紹興辛酉: 고려인종19, 1141)중추일에 쓴 송나라 대계(戴溪)의 자서(自序)가 있고 또한 별면에 목록(目錄)상하에 수록된 인물이 나열되어 있다.
3. 이책은 춘추시대 손무(孫武)로부터 5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94인을 수록하였다.
4. 이책의 요지는 악한 자는 복철(覆轍)을 삼고 선한 자는 지남(指南)삼아 처세해야 한다고 하였다.

一 서지적 특징

1. 권두제서(卷頭題序)에는 「역대장감박의」 권제1이라고 있고 다음줄에 「성원대계소망선(省元戴溪小望選)」이라고 되어 있다.
2. 사주쌍변(四周雙邊)21.2×16.9cm으로 되어 있고 유계(有界) 9행 18자로 상품저지(저紙)를 사용했다.
3. 태종3(1403)년 춘3월에 계미자(癸未字)를 주자(鑄字)했다는 발(跋)이 있다.
4. 원저의 입수와 증보판의 일본유출
 - 대계의 자서를 보면 그 요지가 용병피기(用兵彼己)의 승부를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이다.
 - 고려 인종仁宗19(1134)년이다.
 - 양유정(楊維禎)이 이책에 서문을 쓴것은 공민왕14(1365)년에 해당된다.
 - 고려사에서는 이책의 수입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다.
 - 세종19(1437)년 7월에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인출(引出)토록 하라는 기록이 있다.

- 한국에서 개수판(改修版)이 나온 시기는 남수문(南秀文)의 발(跋)을 통하여 세종19(1437)년 8월경에 인쇄에 들어갔음을 알수 있다.

- 홍주에서 개수판을 다시 인출한 시기는 성종20(1489)년 11월 이후가 될 것이다.

- 이책이 일본의 홍엽산문고(紅葉山文庫)에 들어간 것은 장서인(藏書印)으로 보아 약 1760(1755~1801)년 경이라고 추측된다.

- 이책은 내사인기(內賜印記)가 확실히 날인(捺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가에서 거래된것이 아니고 교서관(校書館)에서 내사되었음이 확실하다

- 증보판이 나온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 이때에 흘러간 것이 아닌가 한다.

- 이상의 사실을 연관시켜 보면 이책은 군포본(軍捕本 : 일본군이 건우어 드린 책)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 홍주에서 인쇄된 「장감박의」의 증보판

1. '역대장감박의 권 10'의 별면에 태종3(1403)년 춘3월에 계미자(癸未字)를 주조했다는 발(跋)이 있고

2. 계미자 ... 주조 ... 발 다음행에 세종4(1422)년 겨울 10월 갑오에 변계량(卞季良)이 쓴 경지자(庚子字) 발이 있고

3. 또 한 행을 떼어서 선덕9(세종16, 1434)년 추9월에 김빈(金賓)이 쓴 갑인자 주조발(鑄造跋)이 있다.

4. 별면에는 정통2(세종19, 1437)년에 남수문(南秀文)이 쓴 발문이 있다.

5. 전기 남수문의 발문을 보면 대계의 '장

감박의'를 그대로 전재(轉載)한 것이 아니고 사적을 간략히 분입(分入)하였음을 알수 있다.

6. 이책의 인출시기는 세종18(1438)년 11월 인출이라 되어 있다.

7. 이해 8월에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인출했고 세종19년에 운부군옥(韻府群玉)을 인출했으니 바쁜 그 사이에 증보판이 나온셈이다.

8. 세종실록19년 7월 기사에 “세종은 집현전에 명하여 사전(史傳)을 참고하여 「장감박의」에 실려 있는 여러장수들의 사실을 선집하게 하고 집현전 응교(應敎) 남수문으로 하여금 그 권미에 발(跋)을 짓도록 명한바”있다.」

9. 원본과 증보부분에 대한 비교는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10. 1437(세종19)년 「장감박의」증보판이 인출되어 여러사람에게 읽힐 칠운이 있어 1489(성종20)년에 5개처(수원, 홍주, 원주, 상주, 해주)에 개간(開刊)을 명하였다.

11. 「역대장감박의」의 내용과 증보판을 비교하여 보면 지방판(수원, 홍주, 원주, 상주, 해주)은 증보판의 중간내용부분에 해당됨을 알수 있다.

(주) ① 고려사 p167下 左

結城의 沿革과 邑治

黃 性 昌

(洪州鄕土文化研究會員)

・結城文化財保護會)

結城은 本來 忠淸道 結城郡이다.

왜정大正 三年(1914) 洪州郡과 합쳐진 현 재 홍성에서 서남쪽 40리 지점에 위치한 면 소재지이다. 선사시대부터 馬韓의 부족국가 감계비리국(監溪卑離國)이라 전하며, 서해안 천수만의 중앙지인 모산만(牟山灣)과 말흘천(末訖川) 즉 간허천(干許川), 현 금곡천(琴谷川)과 와룡천(臥龍川) 등지의 유역에 인류가 정착하여 중국과 교역하며 불교문화의 도래로 농경문화가 일찍이 발달하였었다. 현 신금성을 중심으로 부족국가가 형성되어

점차 발전하여 백제 서부지역의 큰 고을로 結己縣이며 2개의 영현을 거느렸고 신라시대에는 3개현을 거느린 요충지였다. 고려말부터는 郡이었던 큰골이 洪州下의 地域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여 이조때는 縣으로 강등하였고 또한 신금성에서 읍성내 석당산 정상(內淡山城주회 960尺 토축)위치에 읍치를 옮겼다가 洪武乙卯(1399)년 本邑으로 이전하였다는 기록은 建文一年과 같고 또한 洪武己卯(1375)의 오기가 아닌가 사료된다.

邑山城증개축과 동시 석성과 동문(振衣

樓) 또는 동헌(望日軒)이 강희 4년(1665년)에 客舍(契城館), 內衙(平近臺), 刑房廳, 縣司, 作廳 및 及唱廳, 使令廳, 鄉廳, 工庫, 軍器庫 등은 증개축시가 동시이며 縣지도의 형상청은 해안지방의 특성에 맞는 刑廳과 將廳이 합쳐진 官廳이라 추측된다.

邑城石築周回三千三百二十五尺八才 高九尺~十四尺, 甕城二, 曲城一, 東西二門而東門樓一層西門無樓閣, 城外垓字, 城內有六井冬夏不竭

本邑은 결성군 縣 內面의 석당산을 의지한 邑內로 좌변리와 우변리, 교전리, 교후리가 좌촌, 우촌, 교촌, 교후리로 왜정때 행정구역개편시 11개법정리로 읍, 내, 리 좌우촌, 교촌으로 개정됐다.

※ 이름난 문화재와 유적지

1. 高山寺(고산사 대광보전 : 보물 399호)
2. 청용산(고산 봉수대 : 천수만 일대 絶景地)
3. 결성동헌과 형방청(책실과 아문 지방문화재 306호)
4. 결성향교(명륜당과 대성전 : 지방문화재 158호)
5. 만해 한용운선생 생가지(지방문화재 75호)
6. 신금성지 백제토성 : 발굴조사중(충남대학)
7. 읍산성과 석당산 공원
8. 형산리 용대기놀이(지방문화재 4호)
9. 결성농요와 두레단(결성노인회)
10. 성호리후청동 백제고분군(공주대학)

※ 結城建置沿革

馬韓監奚卑離國古云云

本來百濟結己縣, 新羅結己郡(領縣新材, 沙尸良縣)統一新羅時景德王十六年丁酉(757)改潔城郡(領縣新邑, 新良興陽縣等)屬熊州(十三郡二九縣中郡)

高麗顯宗九年戊午(1018)屬運州(三郡十一縣中郡)

明宗二年壬辰(1172)今名結城

洪武八年乙卯(1375)移今邑

恭讓王二年庚午(1390)結城鎮(鎭城)設置.

洪武三十年丁丑(1397)移邑神衿城

建文二年丙辰(1400)移邑山城

太宗十三年癸巳(1413)例爲顯監

世祖十二年(1466)鎭을 廢止

雍正十一年癸丑(1733)二月有弑罪人次貴變出革屬保寧縣

乾隆元年丙辰(1736)正月因大臣達陳復邑

掌面縣內古等山(高等山)已谷, 加汶山, 廣川, 斗尺

仇項, 花山, 合西等九個面

高宗三十二年乙未(1895)郡置時縣內 龍川, 銀河, 加山, 斗領(斗岩)屈木, 花山, 廣川, 上西, 下西, 等 十個面管轄后倭政1914年三月1日 洪州郡과 合郡同時 洪州의 洪字와 結城의 城字를 따서 洪城郡이라 名稱同時에 縣內 龍川面을 統合하여 龍川面이라 面名中 1917年 結城郡名을 結城面으로 改稱後 1983年 行政區域 變更時 中里와 臥里 六個 行政里가 西部, 葛山에 編入되어 九個 法定里와 二五個 自然部落이 現存中임.

郡名 結己, 潔城, 潔州, 秤城, 秤城, 結城

안회당(安懷堂)과 취은루(醉恩樓)

— 홍주동헌(洪州東軒) —

田 玉 鎮

(洪州鄉土文化研究會員)

- | | |
|--------------------------|-------------------------------|
| 1. 서(序) | 2. 안회당(安懷堂)과 취은루(醉恩樓)의 수난(受難) |
| 3. 목조건물(木造建物)의 전래와 발달 | 4. 안회당(安懷堂)과 취은루(醉恩樓)의 건립(建立) |
| 5. 명칭유래(名稱由來) | 6. 안회당기(安懷堂記)…원문 및 해설 |
| 7. 취은루기(醉恩樓記)(1)…원문 및 해설 | 8. 취은루기(醉恩樓記)(2)…원문 및 해설 |

6. 안회당기(安懷堂記)－원문 및 해설

歐陽子豐樂亭記曰宣上恩德以與民共樂刺史之事也誠哉是言也以刺史而不能宣上恩德則民安得樂不與民共樂則孰謂刺史之事乎若歐陽子可謂報答國恩而亦可以學語安懷之道者也

－ 解 －

구양자(1017-중국 북송의 정치 문장 등에 능한 자)의 풍락정기(豐樂亭記)에 임금의 은덕을 입었으니 백성(百姓; 국민)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만이 자사(刺史; 중국의 민정, 군정 등을 겸한 지방 관리 고려의 외관, 성종 14년에 자사제도를 둠)의 일이라 하였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자사(刺史; 지방의관 관리)로 임명되고도 임금의 은덕을 모른다면 백성들이 어찌 즐거워 할 것이며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 할 줄 모른다면 어느 누가 자사(刺史)로써의 임무를 다했다고 하겠느냐 구양자(歐陽子)는 임금의 은덕을 보답한 사람으로 또한 안회(安懷)의 도(道)를 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 豐樂亭은 中國 滁州의 南쪽에 있는 亭子이다.

宣上恩德固是安懷之方也與民共樂亦是安懷之効則爲臣子憂國奉公古今一轍前後一揆也顧以直姿幸生大有之世猥蒙盛寵歷事兩朝換符至九自天隆眷遺出尋常萬萬則頂踵毛髮何莫非國恩衣服飲食何莫非君賜

－ 解 －

임금님(宣上)의 은덕이 진실로 안회(安懷)의 방법이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함은 안회(安懷)의 효과이다. 즉 신하(臣子)가 되어 나라를 걱정하고 공사(公)에 충실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고 전세대나 후세대에도 하나 같은 규칙이다. 돌아보건대 나는 구차하게 (直姿) 태어나서 다행히도 풍성(大有...풍년)스러운 세상에서 살게 되었고 외람하게도 양조(兩朝...哲宗朝 高宗朝에 官職)에서 구경(九...九卿...朝鮮朝正二品官 九品

官牧使) 즉 목사에까지 이르렀으니 하늘에서 높이 도와주셔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찾아서 돌아와 주셨으니 지금까지 신체발부(頂踵毛髮) 즉 이 몸이 있는 것이 국은이 어찌 아니며 의복음식이 어찌 임금님의 주신 것이 아닐소나

又況白髮高堂養以榮寵其在奉檄之喜欲報之恩天地無涯河海難量於丁卯歲來守洪州洪州古之海豐縣而府衙之廢撤未知其幾許年所也城堞頽頽臥柳成橋廊壁荒涼碧蘚庭於是乎邑人之指點識者之慨歎厥有矣

- 解 -

또 하물며 백발이 되신 부모님(高堂)이 임금님의 은총으로 영예롭게 생존하시니 그 영광스러운 기쁨(奉檄之喜)에 은혜를 갚고저 해도 하늘과 땅과 같이 끝이 없으며 강과 바다와 같이 헤아릴 길 없도다.

정묘년(1867)에 홍주(洪州)목사로 부임했다. 홍주(洪州)는 옛날 해풍현이었는데 관청(府衙)이 없어진지 몇년이 되었는데 알 수 없고 성돌(城堞)은 무너져 버드나무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다니고 관청의 벽들은 다 부서졌으며 마당에는 이끼들이 푸릇푸릇하니 고을사람들은 다 지적하여 가르쳐주고 배운 사람들은 개탄한지 오래도다.

越四年庚午春乃有府衙新建之舉克承景福宮重建之休也祇奉朝令播告州民爰發我龜建此棟宇運木石而克動執繩墨而咸和築之也登登約之也閣閣

- 解 -

부임사년째 때는 경오(1870)년 봄에 관청을(府衙) 새로 건축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경북궁(1865년 4월에 기공하여 1868년 6월에 완공……3년 2개월)을 국명을 받들어 짓고 봄이 있어 쉬고 있던 시기라 조정의 명을 받들어 읍백성들에게 선포하니 나의 계획에 따라 이집(棟宇)을 짓는데 목석(木石)을 부지런히 해주었고 목수들이 목줄을 펴기는데 서로 합심(咸知)하여 일하니 집이 쑥쑥(登登) 올라가고, 시간을(約之也) 절약하여 기간을 단축(閣閣)하니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以其年丁亥月既望落之雖以民力爲之而是實王靈之攸暨也謂其聽事之堂曰安懷安懷者蓋取諸魯論老者安少者懷之義也余以無似安敢與語於聖人之道然而圖報國恩之微忱每功於安老懷少故吾以名吾堂也

- 解 -

그해 정해월(1870. 10월) 보름날에 완공했다. 이것이 비록 고을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졌지만 기실은 돌아가신 임금님들의 영혼들이 도와주신 덕으로 알고 내가 정사를 처리하는 집의 이름으로 안회(安懷)라 했다. 안회란 뜻은 선성들(諸魯論)의 말씀을 참고한 것이니 늙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젊은 사람들을 돌봐주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나같이 변변(無似)치 못한 사람으로써 성현들의 말씀에 어찌 말할 수 있으리오만은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라도 갚는 것은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젊은 사람들 어루만져 주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내가 이집 이름을 지었도다.

凡此蒼生爲爲王者天而吾能安之則庶可以報王矣凡此赤子爲國之本而吾能懷之則庶可以報國矣

- 解 -

무릇 나는 백성(蒼生)을 임금이요 하늘로 알고 편안히 모시는 것이 임금님에 대한 보답이요 또한 젊은(赤子)사람들은 나라에 근본이니 제가 어루만져 주는 것만이 나라에 대하여 보답하는 길 일뿐이다.

使斯民無凍餒之嘆者安之之道也使斯民有蹈舞之喜者懷之之道也

- 解 -

백성들이 추위에 얼고 먹을 것이 없어 탄식하는 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안(安字)자의 도리요 백성들로 하여금 기뻐서 뛰고 좋아서 춤추는 기쁨이 있어야만이 회자(懷字)의 해석이다.

幸際舜堯都俞之治恐負龔黃循良之責故登斯堂也吾其有思乎是邦之內鄙屋生涯夏暑兩冬祈寒小民得無怨咨之聲歟春東作秋西成農夫果有黍稷之慶歟

— 解 —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태평한 시대(堯舜都俞之治…堯임금의 선정을 都라하고 舜임금의 치적을 俞라함……卽 평화롭고 태평한 모습의 대명사)를 만나서 내가 조심스럽게도 홍주목사의 직책(龔黃之責……堯王代의 龔遂舜王代의 黃霸※ … 백성과 더불어 共樂한 良吏……)을 맡아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정사를 맡게 되었으므로 이집(安懷堂)에 올라올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잊지 않았노라 이 홍주땅안에 꺼적집(蔕屋)에서 살면서 여름철 비와 겨울철 뒀추위에 조금이라도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나 없었는지 걱정되고 봄에 농사를 시작하여 가을에 추수하여 농부들이 제사를(黍稷之慶) 거르지 않고 지내여 기뻐하는 지도 걱정 되도다.

衣帛食肉之老者幾人 強負其子而至者幾人 造次焉必於是 民艱沛焉必於是 民安不安歟

— 解 —

비단옷 입고 고기를 먹는 노인은 몇 명이며 그 아기를 퍼대기 떼어업고 온사람은 몇 명이든가 나는 이 집을 지은 것도 백성을 위한 것이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백성만은 위할 것이니 어찌 불안하지 않겠느냐

每懷靡及苟或一老者之不獲惡在其奉公也一少者之失所惡在其任責也吾之此心及於一州之老與幼則庶可爲報効之誠字牧之道也

— 解 —

내가 조금이라도 덜살피어 한 노인이라도 차례가 안간다면 어찌 공사를 잘했다 하겠으며 한 젊은 사람이라도 생업을 잃은자 있다면 어찌 목사의 책임을 다했다 하리오 나의 이 이마음이 우리 곁의 노인과 젊은 사람들까지 미친다면 무릇 나라에 보답한 효과라 할 것이어니 성자(誠字)는 목사의 도리이다.

非敢曰能於安懷而亦何必自割耶是故安之安我也懷之懷我也安民之安而民亦安其安焉懷民之懷而民亦

懷其懷焉則斯堂之名豈徒然而已哉焚香危坐以余告余曰古之豐樂今之安懷名雖殊而其爲民之意則一也汝其慎旃慎旃無古人也

— 解 —

내 용감했던 생각을 나물해보면(非敢曰) 안(安)과 회(懷)에 능하다고 자신있게 생각될지라도 하필이면 내가 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연고로 평안하다함은 나를 품어준다는 것이니 안이란 것은 백성들이 평안하면 백성들도 평안하여 마음의 안정을 느낄 것이요 회(懷)는 백성들의 어루만짐이니 백성들도 역시 회(懷)를 느낀다면 이집의 이름이 어찌 당당하다 않겠느냐 향불 피고 무릎꿇고 앉아서 내가 나보고 물어보아도 옛날 풍락정(歐陽子の 豐樂亭……中國……) 지금의 안회당(韓應弼의 安懷堂)이 이름만 다를뿐이지 백성을 위한 마음은 하나일 뿐이다. 나의 진정한 것발(情旆)이 옛 구양수(歐陽修)에게 부끄럽지 않다.

噫鴈鷺既退符牒乍停梅月微生簾烟初曷憑軒瞻睥睨鳳首環檐鳥樓入簾月山從出雲屏之曉色蒼蒼烟島低回海門之夕暉淡淡

— 解 —

슬프도다! 기러기(鴈鷺= 鴈……哲宗指稱)이미 물러가니 부침(王命)이 잠깐 멈추었도다. 매화같은(高宗指紉) 달이 조금 뜨기 시작했으나(年少) 검은 연기(簾烟)……(儒林)가 처음부터 나른하게 가리는구려…… 마루(安懷堂樓)에 기대어 아래위로 바라보니 처마는 봉황새 머리를 본따 둥글고 나무위 까그매집은 안회당(安懷堂)의 주렴(珠簾)처럼 걸려 있구나 높게 솟은 백월산(白月山)을 두른 구름병풍의 색깔이 아침해 뜰때의 모양 같이 아름답고 연기에 싸인듯 한 섬들 사이로 보이는 바닷물의 저녁 햇빛은 황홀하기만 하도다.

金馬逝川東連北瀕隱流若橫帶平鋪如鏡面誠十二島之管領廿七坊之都會呈其態供其賞者固是湖西之一勝州而斯堂又盡得是州之勝狀也把酒臨風琴娥騷客暢叙幽懷可謂太守之樂也

— 解 —

금마친의 흐르는 물은 동쪽에서 서서히 흘러 북쪽으로 돌고 조용히 흐르는 물은 띠를 두른듯 하고 퍼져 흐르는 물은 거울 보는듯 맑기만 하다. 진실로 12섬의 관영이요 27방의 도회지로서 그 모양을 보고 다같이 贊출만하니 이곳이 호서(湖西)의 제일 좋은 곳으로서 이 집은 또한 이 고을의 좋은 형상이로다. 술들고 바람쐬며 거문고 타는 아름다운 여자가 그윽한 회포를 풀이주니 가히 태수(太守……新羅時代地 旣의 秣號)의 즐거움이라 이를것일세.

然而吾州之民或有不得其所者雖有百尺之樓數仞之堂林壑之美烟霞之奇豈能狃樂哉故與民共樂吾以爲安懷之義也

— 解 —

그러나 우리 고을의 백성 중에서 혹 그가 일할 자리를 얻지 못한자가 있다면 비록 100척의 투와 큰집 그리고 산골의 경치 좋은 곳 안개낀 절경이 있다해도 어찌 흥쾌한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런 연고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만이 안(安)과 회(懷)의 참뜻이 있는 것이로다.

矧今大院位特嘉命名之義親自手書俾生斯堂之顏色余乃常目在之名焉在茲念焉在茲矣

— 解 —

하물며 대원군이 안회당(安懷堂)이라 이름진 것을 특별히 칭찬하고 손수 글을 써 주었으니 이 집의 면모에 빛나도다. 앞으로 하여야 할 일(常目)이 여기에 있고 이름진 것도 여기에 있으며 생각도 여기에 있으니.

後之繼余而蒞茲州者顧名思義俾斯堂名稱其情則庶幾有補於政化之萬一云爾

— 解 —

내 뒤를 이어 이 고을의 목사로 부임하는 자는 이름의 참뜻을 살피 집이름 안회의 정을 두고 지나면 거이 정사(政化)하는데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로다.

崇禎元治五周甲上章敦 旰丁亥旣望

洪州牧使 韓應弼 識

1870년(崇禎元治五周甲) 경(慶=上章) 오(午=敦) 10월(丁亥月) 15일(旣望)에 홍주목사 한응필 지음

併 紋

余自十有餘年離鄉奉職庚午來守洪城大院位親筆安懷堂懸板與安懷堂記額戰亂消失嗚呼憫然與先知謀共考典新製刻元揭添堂戶棟心懼懼後之繼公顧思其意永保先賢之情意則有贊於後世矣

함께 이어 기록함(併紋)

내가 십여년동안 고향을 떠나 공직생활을 하다가 1991(음력: 경오년 설달)에 홍성군수로 부임해보니 대원군(홍선대원군)이 친히 쓴 안회당현판과 안회당기 액판이 전란(戰亂)으로 없어졌으니 서글픈 일이다. 옛일을 잘 아는 선배들과 고전등을 참고하여 다시 원형대로 만들어 나무에 새겨 안회당 입구에 달으나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나의 뒤를 이어 군수로 부임하는 분께서 그 뜻을 이해하여 선현들의 참뜻을 간직해주면 후세 사람들도 좋다고 할 것이다.

光復後重光協洽癸巳晦

洪城郡守 李商善 謹記

1945년 8·15해방(광복)후 1991년 신(辛=重光) 미(未=協洽) 6월(음: 癸巳=4월) 11일(음=그믐날)

홍성군수 이상선 삼가 기록함.

7. 취은루기(醉恩樓記)(1) 원문 및 해설

洪州牧使 韓應弼

余嘗觀醉墨醉白醉竹醉翁諸記有以知夫古人自托自娛之義也彼胡爲乎不醉於他而獨醉於是耶凡所遇之境各殊而所志者不同也

— 解 —

내가 일찌기 먹으로 그린 그림에 취하여 머리에 먹을 적서서 그림을 그린 당나라 장욱(張旭)과

<註> 醉墨…唐 張旭 善書而每醉 以墨濡首而書之

술을 좋아하여 매일 300잔의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래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태백(李太白)

<註> 醉白…好飲酒而有但願長醉不願醒之…

5월 13일을 취죽일(醉竹日)이라 정한 구양수(歐陽修)의 취옹정기(醉翁亭記)를 보면

<註> 醉竹…歐陽修作 醉翁亭記中五月十三日爲定 醉竹日也…

옛날 사람들은 직접 수제비 끓여먹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던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함께 취하지 않고 혼자 취하는 것을 의(義)로 알았을까? 무릇 만나는 장소가 서로 다르고 그 뜻이 같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然則今吾之醉恩其與墨也白也竹也翁也醉則一也而其醉之之義則相去也遠矣

— 解 —

그러나 지금 내가 성은(聖恩)에 취한 것은 당나라 장욱(張旭)이 먹에 취하고 이태백이 술에 취하고 구양수가 대나무와 노인들께 취한 것이나 취한것은 같지만 그 취한 뜻(義)은 서로 거리가 멀다.

余以齒暮不似之姿前後十數年內班外除有隕自 天兩朝殊遇九邑遷典其在荷 聖寵慶好爵懷感激當何如哉粵自富平來守洪陽衙軒荒廢城堞傾頽有損於州民之觀聽庚午春乃新建安懷堂堂之東有一高樓樓是醉恩樓也

— 解 —

내가 구차하고 변변치 못하여 자란 사람으로 10여년간을 내반(內班…內職)에서만 근무했고 양조(哲宗朝, 高宗朝)에서 아홉개 읍(邑)을 현감(縣監)과 목사(牧使)를 지내도록 성왕(聖王)께서 좋은 벼슬을 주셨으니 황송하고 감격스러움이 어찌하겠는가. 내가 부평(富平)에서 홍양목사(洪陽牧使)로 부임하니 아헌(衙軒…官廳)은 황폐하고 홍주성이 무너져서 주민(州民)들도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다. 1970년(庚午)봄에 안희당(安懷堂)을

지었으니 동쪽의 높은 마루는 취은루(醉恩樓)이다.

濡首不自知之謂醉浹骨難忘之謂恩恩可忘乎醉而不知也百里專城是誰之賜天高地厚而自不覺其高且厚焉五馬新榮是誰之力海深山重而揮不省其深且重焉

— 解 —

머리를 적시고도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것을 취(醉)했다하고 뼈에 사무친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을 은(恩)이라 한다. 은(恩)을 가히 잊을 것인가. 취(醉)해서 알지 못했노라 백리나 되는 성(城)은 누가 준 것이며 하늘이 높고 땅이 기름저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또한 높고 기름지도다 다섯말(五馬)의 영광(榮光)은 누구의 힘이며 바다가 깊고 산이 깊어서 빛이 비치지 않으니 그 또한 깊고 또 깊도다.

公退之暇登斯樓也一詠一觴者醉於恩也事簡之除登斯樓也爰笑爰語者醉於恩也然則吾以醉恩二字鑒錫嘉名不亦宜乎史不云乎帝力何有於我哉者堯民所以醉於知氣也易不云乎

— 解 —

공무를 처리하고 퇴청할 길에 이루어(樓)에 올라 시(詩) 한 수를 읊고 술(酒)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성은(聖恩)에 취(醉)한 때문이요 업무를 처리하다 이 루(樓)에 올라 웃고 즐거워 하는 것도 성은(聖恩)에 취(醉)해서 그런 것이니 그렇다면 내가 지은 취은(醉恩)의 두 글자는 처음 얻은 주석같은 아름다운 이름이니 또한 의당한 이름이 아니겠느냐 사기에도 기록할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임금님이 나에게 이와같이 성은(聖恩)을 베풀셨으니 요(堯)임금의 선정(善政)에 백성들의 화기(和氣…醉恩)에 취(醉)한 것과 바꾸지 않겠다고 아니하겠는가.

百姓日用而不知者義世所以醉於至化也譬如魚鼈之涵泳於江湖潭忘恩波之浩浩草木之發榮於雨露不知惠澤之熙熙 國恩之於我也何莫非江湖及雨露歟未知吾亦爲其堯民歟亦未知吾亦在其義世歟且夫醉於名利者利盡則不醉醉於麴蘖者麴盡則不醉是皆醉而不醉也吾之醉其諸異乎人之醉之歟

— 解 —

백성이 날마다 쓰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잊고 사는데(堯世…伏羲時代의 지칭이나 세상을 잊고 숨어사는 사람을 일컬음) 취해서 그런 것이니 비유하건데 고기와 자라가 강에서 헤엄을 치는데 파도가 조용한 은혜를 잊는 것과 풀과 나무가 비와 이슬을 받아먹고 살 것만 그 혜택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국은(國恩)이 어찌 나에게 강물(江湖)과 비와 이슬(雨露)같지 않겠는가. 나 역시 요나라 백성(堯民)인줄 모르고 또한 복희씨(羲世)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닌가.

또한 명리(名利…명예와 재리)에 취한 사람은 명리가 다되면 취하지 아니하고 누룩술(麴蘖…누룩으로 만든 것)에 취한 사람은 누룩기운 떨어지면 취하지 않으니 이것은 다 취한 것 같아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취함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清朝日月浴以深澤聖代風雲飽以厚德心安體適刑和氣平而官娥奉庖人繼肉非德而何非澤而何當是時也不羨乎十千斗美味不換乎三百杯須傾世皆醉之以酒而吾獨醉之以恩也

— 解 —

청나라의 해와 달(中國의 政治)은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고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왕조성운에 국민들도 배부르고 후덕(厚德)하여 마음이 편하고 몸도 평안하며 국민이 화합하고 평온하니 아름다운 여인(官娥)은 술잔을 바치고 푸주간에서 고기를 대주니 덕(德)이 아니고 무엇이며 혜택(惠澤)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때를 맞이하여 5천석(十千斗)부자가 부럽지 않고 삼백의 술잔(三百杯)과 바꾸지 않겠노라 세상사람들은 다 술에 취해도 나만은 홀로 성은(聖恩)에 취해있다.
<註> 十千斗=1,000斗×10=10,000斗÷20斗(1石)=5,000石

三百杯=李太白好酒日飲三百杯

金齊紫洞聖化洋溢玉燭春臺吉祥淑洽王在九重醉於仙桃民生八域偃如風草則於斯聖世溫袍萃於佩玉飲水甘於烈鼎而況不溫袍不飲水而撫紫紵歌咏聖澤者乎

— 解 —

금빛 붉은 색으로 단청된 대궐에는 성은(聖恩)이 넘쳐흐르고 촛불킨 춘대(春臺)에는 길상(吉祥)이 깊게 젖어 임금님은 아홉가지 봄빛에 취해 있는데 팔역(八域)에 살고있는 백성들은 실의에 빠져 바람 부는데 홀로선 풀과 같이 쓸쓸하다면 이와같은 성세에 좋은 도포(緇袍)에 옥을(佩玉…왕에게 뵈러갈때 갖추는 金冠朝服의 左右에 달린 옥줄) 달고 물마시며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지내는데 하물며 따뜻한 도포도 못입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백성을 보면서 조정을 혼란시켜(搥紫紵齊)시켜 가면서 성은이라 노래하면서 지낼 것인가.

<註> 搥紫紵齊=대전은 원래 붉은 색으로 단청되어야 하는데 청색으로 도색한다는 뜻으로……혼란을 뜻함.

自余莅茲憂國奉職之心宜上恩德德惟善政政在養民民亦家家扶醉則醉恩樓非獨吾之樓也乃二十七坊群民之樓樓之名大矣哉

— 解 —

내가 이곳으로 부임해서 나라를 걱정하고 집무를 집행하는 마음은 오로지 선상의 성은(聖恩)에 취하였으므로 덕을 베풀어 선정(善政)하는 것이고 정사를 함에는 백성을 잘 기르는 일이니 백성들도 집집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취은루(醉恩樓)는 나만의 루(樓)가 아니라 27방 군민(群民)의 루이니 루의 이름은 대단히 크고 훌륭한 것이다.

噫古詩曰百年三萬六千日但願長醉不願醒醉雖不同實獲我心之美談也然則樓非可愛名固可愛名之者誰太守也太守者誰醉於恩而不自知也

— 解 —

슬프다! 고시(古詩)에 가로되 백년 삼만육천일에 다만 오래 취해서 깨기를 원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 취한 것은 서로 다르나 실은 나의 성운에 취한 아름다운 말로다. 그렇다면 루(樓)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이 좋아서 그런 것이로다. 이름을 만든 사람은 누구이나 그는 태수(太守)다 태수는 누구이나 성운(聖恩)에 취하여 자

기 스스로도 모르는 사람이로다.

8. 취은루기(醉恩樓記)(2) 원문 및 해설

洪於湖右雄府巨防也在麗朝以海豐縣陞運州都團練使萬歷中復置提督以文宰之有雅望者授之重其任也所以城郭臺觀戰艦烽埃之設甲於拆湖諸邑倅擬節度營故聽天沈相國稱以八路第一大都會關防則苟不高大其館舍完補其城堞何以威重於一路而關鎖於水陸千里乎

(解) 홍주는 호서의 오른편의 큰골이며 큰방이다. 고려때 해풍현(海豐縣)으로 운주(運州=지금의 공주)의 도단연사(都團練使)와 같이 만역(萬歷)중 다시 도독부(都督府)를 설치하고 문제(文宰=문관 재상급 도련사(都練使))중에서 골라 배치하였으니 그 책임이 무거웠다. 성곽(城郭)과 대관(臺觀...적병관측소)과 전함(戰艦)과 봉후(烽후...봉화연락)시설이 호서지방의 여러읍(邑)중에서 가장 좋기로 절도령(節度營)중에서 모범(車擬...모의...시범됨)되는 지역이므로 청천(聽天...雅號)심상국(沈相國)은 팔도(八露=八道)에서 제일 도회관방(都會關防=도읍지의 장엄함을 일컫음)이라 일컫었다. 관아(館舍=官衙建物)가 높고 큰것은 아니었지만 성첩(城堞=성쌓은돌)을 완전히 보수하니 어찌 그위중(威重)함이 일개도뿐만 아니라 수륙(水陸)천리를 막을수 있지 않겠노나

年代既遠興廢屢變而迄至于今城圯屋傾延命接賓之所上兩傍風莅民出治之堂屋有四達亭而已大都之典型掃地矣

(解) 연대가 이미 오래지라 흥(興)하고 폐(廢)하고 여러번 변하여 마침 지금에 이르러서 성(城)과 흙다리(圯)또는 집(屋)이 쓰러져서 명을받은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도 위에서 비가새고 바람에 의지하여 형편이 없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처리하는 청사는 사달정(四達亭)뿐이니 대도(大都)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余自尹茲慨然有一新之意而事鉅民窮心誠憂歎者

久矣今年春因巡堞之行心忽猛省日一尺木尙能支廈況余以封疆之臣分聖明之憂若不能事事安在其保障之任乎

(解) 내가 여기에 부임해서 바로 전부를 고쳐야 하겠다는 뜻은 있었으나 일을 하기 위하여 서든다면 백성들은 궁핍해지므로 마음이 진실로 아픈지 오랬다. 금년 봄에 내가 성과 관내를 돌아볼 기회가 있어 마음을 한번다시 반성해보고 한자의 나무라도 항상 모으면 내가 목사된 신하(奉疆之臣...땅을 주어 제후로 봉함)로서 성왕(聖王)의 걱정을 나누어야하고 만약 이런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책임(保障之任)을 다했다 하겠느냐

遂決意傾廩亟謀新建經之營之則度其大小廣狹侈檢之宜鑿斯築斯則度其高深方圓延表之宜石木瓦磚之委輪車運人功之經費一一料理先執左契然後乃以二月二十七日始夜坐運籌晨起董役以身先之則吏樂用命民忘其勞自客舍官衙前營而至於倉積廚傳之所奴令奉公之廳寔不宏敞軒豁因命伐石築城建關而丹樓粉堞石虹鐵樞之制燦然備具凡閱月而工訖

(解) 드디어 쌀곳간(米廩)을 털어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다시 짓기로 정하니 크고 작고 넓고 좁고 사치스럽고 검소한지의 여부에 유의하여야 하고 파고 쌓는 일인즉 높이와 깊이 모진(方)것과 둥근(圓)것 빠치는 방향 그리고 돌과 나무 기와등을 실어오는 일을 차나 인력으로 할 경우 경비를 일일이 계산하여 먼저 계산하여 계획한후 2월27일에 시작하였으나 저녁에 앉아 계산해보고 새벽에 일어나 일하는 사람을 독촉하되 내가 먼저 일한즉 관리들은 즐거워 지도하고 백성들은 어려운줄 모르고 일하니 객사(客舍) 관아(官衙) 전영(前營)으로부터 창고(倉고) 부엌(廚傳) 노비사(奴婢舍)등을 넓히지 않고 마루는 시원하게 만들고 돌을 깨어 성을 쌓고 문을 세워 루에는 단청(丹靑)하고 돌을 다듬어 무지개처럼 문들을 쌓고 철추(鐵樞)의 문을 만드니 찬란(燦然)하게 갖추었도다 무릇 한달(閱月)만에 공사가 끝난 셈이다

於是乎傾者正廢者興壞者完陋者侈邑雖舊而功則

新也乃屬吏民而落之日樂事勸功俾余從心役使者吏校與民之力也宮室既成城郭既完薄牒之暇舉觴登樓則烏岳馬川之勝月山烟島之趣俱在吾几案間以與民同樂者聖上之恩也遂顏其爲政之堂曰安懷堂之樓曰醉恩

(解) 이에 넘어진곳을 바로잡고 폐지된것은 다시 만들고 무너진것을 완전하게 고치고 새는곳은 막으니 읍이 비록 옛것이로데 공들여 새로워졌다 관리와 백성이 함께 만들어 완공하여 가로대 일을 즐겨워 맞은 것은 우리들의 마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百姓)과 더불어 관리들이 잘 지도(指導)해준 힘의 결과이다 궁실(宮室)이 이미 이루어지고 성곽(城郭)이 이미 완공(完工)되었기에 장부(簿牒)를 정리하고 술상(舉觴)을 들고 루(樓)에 오르니 오서산(烏岳)과 금마천(馬川)의 아름다운 절경과 백월산(月山)의 연도(烟島)의 아름다움이 내 책상(几案)안에 다 있으니 이와같이 백성(百姓)과 함께 즐겨워함은 성상(聖上)의 은혜(恩惠)이다 드디어 정사(政事)를 맡아 처리하는 당(堂)을 안회(安懷)라하고 그 당(堂)의 루(樓)를 취은(醉恩)이라하였다

噫凡物之興替固自有時而亦不無人事之相參焉余凡九轉官而到茲何適非恩造攸贊而今此雄邑重地近

百年未遑之役克竣於不幾月者窹維我國家靈長之祚而未知余之新建能無愧於古人初設之初乎

(解) 슬프다 무릇 물건이 있고 폐지되는 것은 진실로 때가 있는 법이고 또한 인사(人事)의 오고 가는 데에도 달려있다 내가 무릇 아홉번이나 관직을 옮겨다니다 이곳에 부임하니 어찌 성은(聖恩)으로 나에게 임무를 준(攸既)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큰읍(雄邑)과 넓은 땅(重地)을 근 백년간이나 보수치않고(未遑之役)있었으나 몇개월만에 고쳤으니 실은 우리 조상님의 영혼(靈長)께서 도와주신 복(祚)이요 내가 새로 건립한 것이 옛 어른들이 처음만든(初設)건물에 비하여 부끄럽지 않은지 알수없도다

但余之爲治竊有愧於聖人安懷之義而欲使後余而蒞此者亦知斯樓之出於恩造則庶斯樓之重新云爾

(解) 내가 목사로서 할일은 성인(聖人)의 안회(安懷...老者安之 少者懷之)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하기 위함이요 내가 이지역에 부임하여 이 루(醉恩樓)에서 성은(聖恩)에 감사하게 느끼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이 루를 지은(重新)참뜻이 있다하겠다.



결 성 농 요

黃 性 昌

(洪州郷土文化研究會員
・結城文化財保護會)

- 얼얼얼상사디 반복형 (모심는 소리)
- 산요・두레・마루・먼들소리 (논매는 소리)
- 얼얼얼상사디 반복형 (관객과 함께)

결성농요는 충남의 대표적인 농요의 하나로서 특히 얼얼얼상사디 반복형의 모심는 소리는 결성면이 본고장으로 인근의 예산군・보령군 일부지역에 까지 전파되었다.

이러한 유서깊고 자생력있는 농요의 고장이니만큼 어렵고 유장한 논매는 소리가 80세 가까운 촌노들의 기억속에 여태까지 남아 있어 오늘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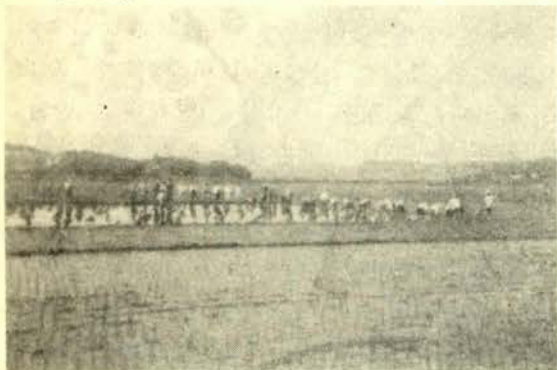
결성지방은 고래로 선사시대부터 또한 마한(馬韓)의 부족국가(部族國家)치소라 전하여 왔다. 일찌기 서해안(西海岸)천수만(淺水灣)중앙지인 모산만(牟山灣)의 금곡천(琴谷川)유역과 와룡천(臥龍川)등지에서 부터 인류(人類)가 점차 정착하여 신금성(神衿城)을 중심하여 중국(中國) 등지와 교역(交易)으로 농경문화(農耕文化)와 불교(佛敎)문화가 빨리 발달하였다. 특히 농어민 생활이 활발하게 발전하여 일하면서 소리를 내어 피로(疲勞)를 이기는 소리가 시작되어 온 다양한 민요(民謠)적 농요가 발전하여 전해지는 중 결성현(結城縣)출신인 음악의 대가 판소리 전승자 최선달(崔先達)先生과 김창용(金昌龍)씨 등의 名唱 후예들과 같이 유일하게 간직 전하여 온 농요로 사라져간 지 50여년 이후 결성노인회(회장:배관제)회원들이 다시 발굴하게 되어 89년도 부터 문화재 전문위원이며 농민요보존회장 이소라

(李素羅)위원이 직접 순회방문 채록 중 결성지방 농요들이 역사가 깊은 농요이며 타 지역에서 절대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소리라며 이 농요의 발상지가 이곳인 것 같다고 하였다. 그 깊은 가치성을 인식하고 발굴에 착수 후 3년이 경과하여 출향 노인들을 찾아 수집하는 등 노력 결과 많은 효과를 보았다. 금년 3월 부터 최양섭 정학재 박복순 최환섭 이이환 최광순 김학인씨 등이 연습을 시작하였으나 농번기를 맞이 하여 야간을 이용 약 30여일간 계속 하였으나 소리가 어려워서 쉽게 납득이 안가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미흡한채로 보존을 위해서 지난 4월 26일 1차 녹음하여 이소라 위원에게 보낸 바 있다. 그 후 6월 26일 노인회 두레단에 의해서 농요발표회를 노인 40여명이 참석, 직접 삼베등거리옷을 입고 논에서 모를 심는 것과 논매는 장면 또한 타작하는 장면과 소리로 옛날식을 재현하였다.



농요와 두레진행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영기를 앞세우고 농사의 상징 용대기를 세우고 경건한 마음으로 풍년을 비는 행사로 농악에 맞추어 일동이 경례를 한다.
2. 용대기를 중심으로 좌상님을 모시고 고시신에게 예를 하고 술잔을 올리고 대표가 절을 한다.
3. 농악에 맞추어 모를 심기 위하여 논으로 들어가서 심기를 시작하며 선소리로 어-렐-렐-렐 상사리 반복하면 다같이 받는다.



4. 모심은 후 아시메기 전에 전쟁이(손질)을 하며 어-기-여하, 소리를 하고 주고 받는다.
5. 가장 어렵고 중요한 아시는 호미질을 시작하며 논값(논매는 값을 수 머슴이 상중 하로, 정한 다음 열-카-닝-어-리, 소리를 한다.
6. 두벌매기를 하면서 산여소리,두레소리,마

루소리,멘성이,몬들산여를 주고 받게 된다.

7. 만물도 같은식 소리로 산여소리 부터 몬들타령까지 주고 받는 것으로 끝을 맺으며 한마당 풍물놀이를 하며 꽃을(꽃나비)서며 소리로 오-오-오 반복 끝까지 한다.
8. 금년 농사는 풍작으로 다벼서 말리며 지게로 저 나르는 지대기(지게장 단과)소리를 하게 된다.
9. 타작 벼(단)토메를 마당에다 쌓아놓고 개상질(자리개질)소리.에-야-호. 참나무 개상에등 주고 받는다.
10. 바숨이 끝이 나면서 바람 좋을 때 죽가래로 들여서 굽어모아 말로되어 넣는 말되는 소리로 재연을 전부 마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 순으로 지난 10월 6일 오후 2시 농민요보존회 초청으로 서울 동숭동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에서 약 1시간 동안 옛날 농요단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 대회는 "농민과 함께 들노래를"이란 주제로 국내의 농민요 전문가들과 학계 일반시민 등 1천여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발표대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미 농촌현장에서 사라진 이 유명한 농요가 이같이 80세 전후의 촌노인들에 의해 보존되고 있는 것에 모두다 감탄 했다. 또한 농요의 발생지가 이 곳 충청도 결성이라고 의견을 모아 새로운 인식을 하고 이 농요를 잘 보

존하기 위하여 문화재로 지정하여 전수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에서의 지원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 농요단 노인들도 호뭇한 보람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 본 농요가 전문가들과 학계의 주목이 되고 갑자기 유명해지자 각 언론계 KBS MBC TV와 조선일보등 4대신문과 각 지방지들도 공연 당일부터 특수 중요기사로 보도하였고 한국민속음악연구회에서도 자료수집하는 등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지

난 18일 KBS라디오에서도 필자와 민영희아나운서와의 인터뷰녹음 방송이 오후 3시와 19일 3시 30분에 방송 된 바도 있다.

끝으로 이 농요를 위해서 공사간 매우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적극적인 지도와 보살피 주신 이소라회장과 서울출연에 적극지원해 주신 이상선군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많이 협조해 주신 이근일변호사, 황규철문화원장, 김양수해전대교수, 배동순회장, 송계수면장, 이범화군의회부의장, 전옥진관광계장, 김청규조합장 그리고 특히 장비지원에 박복선용대기놀이보존회장, 이외에도 성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감사의 말을 올린다.

또한 이 농요와 두레단보존을 위해서는 국가지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게 요청되니 관계기관의 선처를 바란다.

[참고1]

모심는 소리 (상사리 반복형)

♩. = 75~60

(반) β

(메)

여보시오 뱃님네들 이 내 말을 들으랴 보소/
상사났네 상사로다, 입을 못 보아서 상사났네/
알가심은 뭉쳐심고 언덕 밀일랑 떼어서 심세/
이논배미 얼른심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자/
한발짝 두발짝 비루봉 저봉 저히이며/
상사디 소리로 잘들도 맞추네/
여봐라 농부님네 이내말을 들어보소/
언덕밀엘랑은 콩패어심고, 알가심엘랑은 흥쳐서 심세/
여기두 하나 둘이면, 저기두 하안나 둘이란다/
오늘날을 여기서 놀고 내일날은 어디가 노냐/

[참고2]

결성노인회 출연진

연번	구분	성명	년령	비고
1	상좌상	장회안	80才	
2	좌상	배관제	72	회장
3	공원	김정빈	77	총무
4	수머슴	장종환	74	
5	총각대방	이서동	64	
소리꾼				
6	선소리	최양섭	70	산여, 두레, 마루, 맨성이동
7	"	정학재	70	"
8	"	김학인	75	개상질소리 기타
9	"	최광순	66	상사리, 얼카맹이, 어기여차
10	후소리	최환섭	72	기타
11	"	이이환	73	"
12	선소리	이근춘	78	개상질소리
농악군				
13	상쇠	정학재	70	
14	부쇠	이창록	77	
15	징수	이삼환	70	
16	장고수	신세진	74	
17	북수	강연신	80	
18	쇄납	김학인	75	
19	상모	이종환	74	
20	"	최광복	71	
농군(단원)				
21	부머슴	최홍식	69	부회장
22	머슴	편석진	67	○ 용대기수
23	"	김동을	70	○ 용대조수
24	"	유영상	64	"
25	"	장준규	66	"
26	"	최순태	82	○ 영기수
27	"	최옥성	71	"
28	"	정진옥	80	
29	"	김갑성	77	
30	"	이용수	76	
31	"	김원배	65	
32	"	이홍범	69	
33	"	최병현	71	
34	"	이영옥	68	
35	"	이효영	72	
36	머슴	윤세중	70	
37	"	고병규	66	
38	"	장기옥	74	
39	"	장후식	70	
40	"	정홍남	74	
41	"	조명환	76	
42	"	최효창	75	
43	"	최병복	75	
44	"	김만균	78	

충지도 문화재보호회 황성창

옛 숨은 인사 찾기

이 건 업
홍주향토문화연구회원

홍주동문 즉 조양문 증축건립 당시에 업전 3000량 거액을 회사하신 내력과 인사를 소개한다.

고남(갈산면 운곡리 신대에서 1839년도에 출생하시어 초명(애명)은 이석진(錫鎭)이고 관명은 이석주(錫周)이다.

이석주씨 관직은 행 통훈대부 시헌부감찰 직함을 맡아 국가에 공훈과 지역사회에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 훌륭한 이감찰이다.

이석주 감찰은 성품이 온순하시고 성실 근면하였으며 신뢰감이 강직하여 위품이 남달리 숭배하게 되었다.

특히 효행이 대하여서는 유년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지극히 말을 잘 듣고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았다.

1년 365일간에 노모님을 안심케 하시고 봉양에 대하여 언제나 지극히 효성을 다하고 노모를 가을철이 되면 등에 업고서 들판을 구경하게 하시어 종종 기분을 만족하게 실천행동 하였다.

노모가 오색 형점으로 버선을 지어 주시면 그 좋은 마음으로 꼭 버선을 신고 출입

을 하였다.

오색버선을 신은 것을 보고서 물은즉 우리 노모님께서 지어주신 버선이므로 신고 출입도 한다. 보는 사람마다 참 대효하고 칭송이 자자 하였다.

한 사례는 개를 기르는데 한마리라도 없으면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가 다른 다음에 개들이 먹이를 먹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이석주 감찰이 하도 효행이 지대하시고 당내간에 우애가 돈독하므로 미물의 개들도 주인이 훌륭하시게 매사를 처리하기 때문에 감동되어서 보지못하는 행동을 개들도 하였다.

그 후에 하도 효행이 지대함으로 대표되는 김성근대감 김학근 한림학사 그의 유럽계통에서 효자문 건립 추진하는데 적극 반대하여 중단시켰다. 그 이유는 사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바 효자문이 필요없다고 중단하였다.

본관은 홍주이씨 이공 시조는 유성(維城) 27세 후손이다.

증 시조는 홍주이공 휘(諱) 이서(李舒), 시(諡) 문간공, 대광보국 흥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안평부군 17세 후손이며 아버지는 훈규(薰圭)이고 관직은 통훈대부 사헌부 장령공 자제 석주 감찰이다.

1868년 고종 5년도 홍주동문 즉 조양문을 증축 건립시에 거액 업전 삼천량을 기증하여 홍주동문 즉 조양문을 증축하게 되었다.

홍주목사 한응필씨나 각계 인사들이 성금을 내었으나 그 중에 가장 많이 기증한 사람은 고남(갈산면) 운곡리 신대에서 출생한 감찰 이석주씨이다.

1870년도 완벽하고 웅장하게 미적으로 증축되었고 유서깊은 사적 231호로 지정하였다.

洪城邑과 廣川邑의 " 邑 "

昇格時期에 對한 考察

편 집 실

- ◎ 廣川邑이 洪城邑보다 1년 먼저 昇格했다는 廣川邑 有志분과
- ◎ 未分명한 郡內狀況 特히 양읍의 읍 승격을 고증해 달라는 郡議會 질문에
答하는 郷土文化研究會에서의 調査書.

一. 異義提示

광천읍이 1년 먼저 승격되었다. (홍성읍은
광천보다 1년 뒤이다 → 광천 원로분들의 기
억.)

1) 異義 근거

① 1930年代 廣川은 충남의 三大市場으로
부각되어 人口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② 광업으로 淡山里의 금광과 상정리의 석
면광산(전국 생산의 8할)이 촉진제가 되었
다.

③ 웅암포 시장이 90년전에 개장되어 서해
안 도서의 주민이 많이 모여 들었다.

2) 異義 동기

A > 1980년 發刊 郡志 中の 記事를 列舉

① (p.101) 연혁조에서 1942.10.1 광천면을
邑으로 승격하였다.

(*홍성읍 승격이 기재누락되었다.)

② (p.104) 행정연혁에서 1940年 10月 1日
홍양면을 홍주면으로 고치고 다시 홍성읍
으로 승격시키고 1942年 10月 1日에는 광천
면을 광천읍으로 승격시켰다.

*(여기에서도 홍성읍의 승격시기를 분명히
안가리고 있다.)

B > 한국 도시개발총람(86.8.10. : 한국정
제개발협의회) 별지(P.10)表 參照

1944.10.1(부령 253호) 洪城面을 洪城邑

으로 昇格

1942.10.1.(부령243호)廣川面을 廣川邑으로

昇格

*여기 表에서는 廣川邑이 洪城邑 昇格보다 앞섰기 때문에 廣川邑이 먼저라고들 생각하고 있다.

二. 異義에 對한 해명

邑의 昇格 신청서류는 홍성읍·광천읍사무소에서는 근거서류가 尙存되어 있지않은 관계로 法地名의 근거가 되는 관보와 법령 공포에 의하여 해명자료를 탐색 정리했다.

1) 邑昇格 順位別一覽表

(홍성읍이 광천읍보다 1년 빨랐다.)

邑昇格地 一覽表(順位別)					
番號	地名	邑昇格年月日	府 令	邑 昇 格 地	備考
1	大 田	1931. 4. 1	府 令 103호	大 田 邑으로 昇格	
2	公 州	1931. 4. 1	"	公 州 邑 "	
3	天 安	1931. 4. 1	"	天 安 邑 "	
4	鳥 致 院	1931. 4. 1	"	鳥 致 院 邑 "	
5	江 景	1931. 4. 1	"	江 景 邑 "	
6	論 山	1938.10. 1	府 令 197호	論 山 邑 "	
7	長 項	1938.10. 1	"	長 項 邑 "	
8	禮 山	1940.10. 1	府 令 221호	禮 山 邑 "	
9	錦 山	1940.10. 1	府 令 221호	錦 山 邑 "	
10	洪 城	1941.10. 1	府 令 253호	洪 城 邑 "	
11	溫 陽	1941.10. 1	"	溫 陽 邑 "	
12	廣 川	1942.10. 1	府 令 243호	廣 川 邑 "	
13	瑞 山	1942.10. 1	"	瑞 山 邑 "	
14	扶 餘	1960. 1. 1	법 률 537호	扶 餘 邑 "	
15	大 川	1963. 1. 1	법 률1177호	大 川 邑 "	
16	鍊 武	1963. 1. 1	"	鍊 武 邑 "	
17	唐 津	1963. 1. 1	"	唐 津 邑 "	
18	合 德	1973. 7. 1	대통령6543호	合 德 邑 "	
19	泰 安	1973. 7. 1	"	泰 安 邑 "	
20	成 歡	1973. 7. 1	"	成 歡 邑 "	
21	新 灘 津	1973. 7. 1	"	新 灘 津 邑 "	
22	插 橋	1973. 7. 1	"	插 橋 邑 "	
23	儒 城	1973. 7. 1	"	儒 城 邑 "	
24	青 陽	1979. 5. 1	대통령9409호	青 陽 邑 "	
25	서 천	1979. 5. 1	"	서 천 邑 "	
26	安 眠	1980.12. 1	대통령10050호	安 眠 邑 "	
27	매 포	1980.12. 1	"	매 포 邑 "	

(1941년 10.1.洪城邑 昇格)

1941. 10. 1 邑으로 昇格

(1942.10.1.廣川邑 昇格)

廣川邑 42. 10. 1 243號

42 洪州文化

4) 1942.8.20.日字 官報 人口 통계표

• 홍성군 人口-12203명(日本人 529명)

• 광천군 人口-12313명(日本人 387명)

1942. 8. 20洪城邑(1941. 10. 1 洪城邑)

1942. 8. 20廣川面(1942. 10. 1 廣川邑)

朝鮮總督府官報 國勢十七年八月十日(洪城郡廣川面)

	總 數		內 地 人		朝鮮人		外國人	
	世帯	人	世帯	人	世帯	人	世帯	人
青陽郡	14,289	78,946	181	590	14,103	78,332	5	18
1 青陽面	1,351	7,505	40	152	1,311	7,353	2	19
2 雲谷面	1,507	8,636	26	94	1,481	8,542	—	—
3 大峙面	1,217	6,874	6	14	1,211	6,860	—	—
4 定山面	1,415	7,990	8	21	1,407	7,969	—	—
5 木谷面	887	4,760	2	7	885	4,753	—	—
6 青馬面	1,215	6,838	6	8	1,209	6,830	—	—
7 赤谷面	1,919	10,156	52	136	1,867	10,020	—	—
8 新馬面	2,015	10,915	29	131	1,985	10,784	1	1
9 龍谷面	1,375	7,936	6	12	1,369	7,924	2	1
10 龍谷面	1,358	7,336	6	15	1,352	7,321	—	—
洪城郡	18,127	101,666	301	1,147	17,807	100,422	19	91
1 洪城邑	2,318	12,203	131	529	2,187	11,674	10	76
2 洪北邑	1,371	8,661	13	38	1,358	8,623	—	—
3 金谷邑	1,527	8,779	8	21	1,519	8,758	—	—
4 洪東邑	2,066	12,179	9	22	2,057	12,157	—	—
5 長谷邑	1,948	11,267	10	35	1,938	11,232	—	—
6 寶川邑	2,301	12,313	85	387	2,216	11,926	9	15
7 銀河邑	1,290	7,354	4	11	1,286	7,343	—	—
8 新洪邑	1,395	7,864	13	43	1,382	7,821	—	—
9 西浦邑	1,127	6,459	16	36	1,111	6,423	—	—
10 萬善邑	1,207	6,920	4	15	1,203	6,905	—	—
11 龜田邑	1,374	7,664	5	10	1,369	7,654	—	—
通山郡	20,950	116,485	201	731	20,713	115,636	31	118
1 通山邑	3,667	18,461	128	531	3,539	17,930	16	61
2 大谷邑	1,265	7,291	3	6	1,262	7,285	—	—
3 新洪邑	1,616	9,708	5	10	1,611	9,698	—	—
4 光時邑	1,843	10,497	11	23	1,832	10,476	4	11
5 大興邑	1,205	6,318	5	13	1,198	6,305	2	11
6 靈峰邑	1,016	6,226	2	8	1,014	6,218	—	—
7 柳橋邑	2,540	14,191	18	62	2,522	14,110	5	19
8 德山邑	1,423	8,239	6	10	1,417	8,229	2	1
9 鳳山邑	1,339	7,203	2	5	1,337	7,198	—	—
10 古德邑	1,385	10,211	9	27	1,376	10,184	2	11
11 新洪邑	1,382	8,076	3	10	1,379	8,066	—	—
12 吾可邑	1,674	9,523	9	26	1,665	9,502	—	—
通山郡	30,175	166,655	204	745	29,936	165,786	35	124
1 通山邑	2,143	12,813	81	346	2,062	12,467	19	61
2 仁祥邑	1,206	6,501	4	6	1,202	6,495	—	—
3 淨安邑	1,735	10,021	4	9	1,731	10,012	—	—
4 八峰邑	1,292	7,502	4	12	1,288	7,490	—	—
5 地谷邑	1,127	6,326	2	2	1,125	6,324	—	—
6 大山邑	1,295	7,994	2	19	1,293	7,975	1	2
7 聖源邑	1,030	5,365	3	16	1,027	5,349	1	5

이 人口統計表 洪城邑 分岐量 決定的으로 알리는 表
廣川面

※ 이 以上 더 分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1942. 10. 1 이전이기 때문에 廣川面으로 되어 있음.

1942. 10. 2廣川 邑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1942. 10. 5이기 때문에 廣川 邑으로 기록되어 있음.

44 洪州文化

7) 도시계획 개발총람 (冊子에서)

(홍성읍 1944.5.1을 誤植이었다.)

[illegible]

三. 결론

廣川邑보다 洪城邑이 一年먼저 邑으로 昇格하였다.

*1941.10.1.洪城邑이 昇格될때는 洪城邑이 人口數가 많았다.

*1942.8.20. 廣川面의 人口는 증가속도가 洪城邑보다 빠르기 때문에 面이 邑보다 人口수가 많았다.→이후 1개월 10일만에 廣川 邑으로 昇格되었다.

四．建議

이의 동기의 문맥에 의거 91년 홍성군지
중보판보급 추가인쇄 時 홍성읍 승격 부분

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 해야 한다.

- 1) 신군지(91년판) p.107에 다음을 보충
1941.10.1.홍주면을 홍성읍으로 승격

- 2) 신군지 (91년판) p.110 20行에서

『 1940. 10. 1. 홍양면을

홍주면으로 고치고」

다음에 1941.10.1. 홍주면을 홍성읍으로 승격시키고를 삽입 보충해야 된다.

- 3) 신군지 (91년판) p. 266 17行

『1941. 10. 1.(부령 253)홍양면이 홍성읍으로 승격되로』를 홍주면이 홍성읍으로 승격되고로 수정 해야된다.

郷土史情報

— 편집 실 —

1. 홍성군의회 홍주이름 찾기 간담회 공방

군명변경 문제가 처음 발의된것은 지난 4월 3일 홍성군이 향토유적보호 위원회를 소집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잃어버린 옛 이름 "홍주"를 되찾는데 합의 주민여론 조사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92년 1월까지 "홍주군"으로 복명시킨다는 안을 군의회에 상정되어 군의회는 지난 7월 25일 이를 받아 들여 홍주이름 되찾기 검토 특별위원회(위원장 유명우)를 구성.

그 타당성 여부와 복명에 따르는 제반 문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본격화 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2. 1991년 8월 26일

홍주 결성 홍살문 하마비가 세워 졌다.

홍성군은 문화재 복원사업의 하나로 60여 년전에 소실된 홍살문을 5백만원을 들여 복원했다.

3. 1991년 9월 5일.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인 故 김용기장로를 기리기위해 제정된 제 1 회 「一家賞」 수상자로 朱옥로 전폴무학원 이사장(농업상) 윤창의 광림기계회장(산업상) 잠룡 태국 방콕시장(사회 공익상)이 선정됐다고 —

家紀念賞재단(이사장 조향록)이 5일 발표했다. 일가기념상재단은 주옥로선생이 농민자질 향상과 농촌수호를 위해 「풀무학원」을 개교 30여년간 농민교육에 평생을 바치면서 「풀무신용협동조합」 「어린이의 집」운영을 통해 농촌복지사업에 기여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4. 1991년 9월 4일부터~10일까지.

광천읍 광천리 전운씨(대천 유치원장. 향토문화회원)는 서울 안국동 윤갤러리에서 「그림6인전」을 가졌다.

홍익대학교 미술 교육원을 수료한 전운씨는 대한민국 사회교육문화상 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홍미회회장, 대천 이삭미술학원장을 맡고 있다.

5. 웅기 50점 출품 갈산 이종각씨, 경북공서재래식웅기제작법, 기능보유자 이종각(76. 갈산면 동성리 웅기장)는 한국문화재보호협회가 주관하는 “전통생활 도자웅기전”에 웅기 50여점을 출품했다.

지난 22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경북궁 전통공예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청자, 백자, 분청사기, 웅기중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1백 20점 웅기 1백 80점 등 생활웅기가 전시 판매되었다.

6. 1991년 9월 20일 결성형방청 해체복원

이름 ‘현사’로 1896년 상량문 ‘공무원 수양관’해체복원시 상량문의 일부가 발견되어 해석해본 결과 공무원의 수양관으로 기록되었

음을 확인, 규장각에 보존된 결성현지도(참고: 표지도)와 대조 짐작컨데 “현사”로 지칭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기존명칭인 “형방청”은 결성 향민들의 구전에 의한 살아있는 물증이라는 명칭수정불가론이 있어 앞으로 전문기관의 고증이 필요시 된다.

7. 홍주문화상 배동순·최숙자씨 수상 문화교육 충효열 부문 선정

8. 1991년 10월 6일 “농민과 함께 들노래를”

제2회 대학로 농민요발표회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에서 있었다.

농민요 보존회 회장인 이소라씨의 발굴로 새로 탄생된 결성농요가 소개되어 결성인들의 내고장 문화사랑의 결실로써 대학로 공연의 큰 보람을 일게웠다.



조상의 얼 담긴것

박 문 신

개와 쪼각 하나

토기 쪼각 하나

돌맹이 하나에도

조상의 얼 흔 잠겼는데

갖추어진 문화재 유물 마저도

허물고 부수고 버리는

내 겨레의 무지, 조급성

하나 밖에 모르는 아쉬움

이젠 먹고살기 나아졌으니

그 버릇 못버림도 배고픔 탓이랄까

언제부터 내것 모르고

반만년 이어온 의식주 버리게 됐나

사라진뒤 후회한들

한번 간 것 찾지 못할텐데

내 조상이 쓰시던

담뱃대 하나 씹지 하나

고이 간직할 줄 아는 마음

언제 다시 갖게 될지...

뿌리를 캐는 분들의 건강

김 용 신

홍주향토문화연구회원

심마니는 산삼을 캐러 산에 다닌다. 푸른 숲을 헤치고 오솔길을 따라 정처없이 길을 떠나 이젠 길도 없는 풀속을 헤치며 다닌다.

나는 그들이 정녕 부럽다. 그들은 요즈음 도시인들이 원하는 산림목은 물론이려니와 온갖 들꽃과 샘물 푸른하늘 그림처럼 걸려 있는 흰구름과 벗하며 살아가고 땀흘린 후의 휴식과 붓짐속에서 꺼낸 한끼의 식사는 얼마나 맛있으랴! 그들은 생활하는 시인이며, 그들의 생활은 한편의 시이고 낭만이다. 그들은 꿈도 꾸다. 산신령이 계시하는 깊은 산속에 숨은 한뿌리의 산삼꿈, 새벽추위에 몸을 웅크리며 피곤한 잠을 마저 마무리하며 잠잘때 따뜻한 이불을 덮어 주는 선녀들의 꿈, 그런 꿈을 꾸며 산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꿈을 꾸며 희망에 살아가는 그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건강하다. 신성한 노동과 꿈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건강하고 자유롭다.

나는 또 다른 심마니들을 만난다.

그들은 향토사학가들이다. 그들은 모두가 과거에 묻혀버린 역사를 캐는 심마니들이다. 내조상이 잠들어 있는 고향산천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왜 살았

는지 그들은 탐색한다. 골방에서 희미하게 바랜 한지한장에 쓰인 글씨를 판독하기도 하고 대궐같은 도서관에서 관계문헌을 찾으며 며칠을 보내기도 한다.

허물어져가는 성터의 바위 한조각 기왓장 한조각도 소중한 산삼이 되고 땅속 깊이 묻힌 도자기 한조각을 만져보기위해 뚝뚝 땀을 흘린다.

그들은 부족한 사료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조상의 슬기에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한다. 건고 움크리며 삼질 호미질하며 역사를 캐는 심마니는 외롭지 않다. 신선한 노동과 연구와 사색과 그리고 경이와 찬탄이 그들의 삶이다.

이런 생활의 그들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밖에 없잖을까!

과거와 결합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다가오는 미래는 다시 과거로 물어 버릴 또 하나의 과거일 뿐이니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다.

영원한 역사의 흐름위에 우리의 삶은 한 순간인 것 !이런나를 확인하는 역사연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창조주의 품속에서 쉼을 얻으니 얼마나 뜻있는 일이라!

丹溪翁 朱雲亨의 출생지를 찾아

허 규

홍주향토문화연구회원

경위지남학회 -

경수와 위수가 있으니 경수는 탁류(濁流)요 위수는清流(清流)라, 이 둘이 한데 모여 흐르는 강이 황하(黃河)다. 인류기원의 젖줄이며 동양사상의 산증인이고 맑음과 혼돈이 함께 공존하는 역사의 흔적속에 묻혀있는 보고(寶庫)다. 詩經의 徑渭相入而清濁異란 詩구를 인용하여 현대의학에 묻혀 혼미해진 동양의학의 옳고 그름을 가려 漢藥學會를 만들어 후학을 키우며 醫藥人의 길을 걷고 있는 玄文秀先生를 쫓아 공부하길 수년, 이제 한약이란 학문의 전체를 어느 정도 그려낼 수도 있고 하나하나 분류해서 학설의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 및 諸醫家의 사상을 음미할 수 있는 연륜이 쌓였을 때쯤 玄先生님이 제안한 중국본토 여행은 필자의 가슴을 온통 휘저어 놓고 말았다.

명분 하나, 지역별 제가분류

들, 고래(古來)제가의 학술적 사상배경이 된 지역특성조사

셋, 한의학이론의 배경이된 중국 사상가들의 출신지 조사.

넷, 중국자원식물로써 항암응용 생약의 기원 분포조사.

이 넷을 묶어 「중국의 자원연구」란 대명제 아래 상해 중의학원 및 상해시 중의약연구원과 서신교류를 통해 초청장을 받아들고 한달간의 일정으로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이 모이니 모두 4명이었다.

현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던 이주호약사와 필자 그리고 독립지사의 자재로 태어나 젊은 시절을 중국대륙에서 지내고 조국에 돌아와 공직에 몸을 담고 현대사의 풍상을 모두 겪고 이제 야인이 되어 70고개를 넘어선 이상기 장로님이 통역을 맡기로 하고 1년간 자료수집에 들어가 몇차례의 회합과 무역관계로 입국한 중국측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현지 사정을 수집하며 서류를 갖춰 수속하니 91년 3월 26일 대망의 중국여행의 문이 열렸다. 홍콩을 경유하여 군복차림의

스튜디오스 아가씨의 안내를 받으며 홍콩발 하문행 비행기에 오른것이 27일 1시 20분

중국 5대 항구 도시중의 하나며 화교가 가장 많이 왕래하는 탓으로 개방되어 활기를 띠고 있는 도시(都市). 이곳이 바로 50년전李장로님이 10대와 20대의 젊음을 보냈던 곳이기에 일행은 이곳을 기점으로 삼았다. 장로님의 과거속에 입력되었던 젊은 시절에 살던집, 뛰놀던 학교 운동장, 로맨스가 있었던 영화관, 그리고 시장모퉁이, 이거리 저건물이 모든게 그대로! 그대로! 이순간李장로님은 다시 20대로 돌아와 감격하며 잊혀졌던 말문이 트이고 지워졌던 그들의 풍속, 그들의 음식 모든게 되살아나 자신 만만하게 우리 일행을 리드해 나간다.

이제 모든게 충전되고 발화되어 튀어 오를 수 있다는 확신속에 하문발 항주착연표를 끊어 연와석(침대칸)에 몸을 싣고 중국 대륙의 한모퉁이 醫家의 유적지를 찾아 나선다.

義吳人-

한방의학이 내경에 근원을 두고 수천년동안 수천만인의 경험과정을 통하여 장준경¹⁾의 상한론²⁾을 거쳐 영세불간지전(永世不刊之典)으로 신봉되어오던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및 局方³⁾에 탁월한 비판과 정밀한 논리로 한방계에 새 국면을 개척하여 활인구막의 막대한 공헌을 한 단계 선생의 약력에『今浙江義烏縣 출생한 고향은 赤岸이라. 一條溪流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丹溪혹은 존경하여 丹溪翁이라 불렀다.』는 문구 한 귀

절에 이끌려 자음설의 大家 단계용 주운형의 탄생지를 찾아나선 것이 우리 일행의 첫 번째 행선지다.

지도를 살피고 타고 있는 열차의 현위치를 확인해가며 도로도 표시되지 않은 赤岸이란 마을에서 가장 가깝고 큰 도시인 金華란 도시에 일행은 23시간의 기차여행을 마치고



금화역 광장에서 바라본 역앞 전경

28일 아침 11시 반에 을씨년스런 역광장에 내려서 하늘을 본다.

보슬비가 히뿌연히 콘크리트건물이 시꺼멓게 서 있고 다닥다닥 상점들이 보이며 꾸부정한 행인들의 물결속에 섞여 엉터리 봉고차로 호텔까지 안내 해줄것을 흥정하니 어느 시골역사에 서울사람이 내리면 우루루 아이새끼들이 몰려들어 무슨 구경거리래도 만났듯 끼끼덕 거리던 어린시절의 추억이 현실로 꾸며지고 어렵게 어렵게 인민페10원⁴⁾에 휘발유 냄새풍기는 누적누적한 봉고차 시트에 앉는다.

창밖으로 보이는 이국풍경을 바라보며 외국인전용 호텔인 금화반점을 찾아가니 공산

註1) 1) 장준경: 서기158~166후한, 『상한론』과 『금계요략』을 저작

2) 상한론: 후한, 건안, 연간 약 1700년 전에 장준경에 의해 저술. 급성열성병의 증후와 치료법을 서술

3) 태평성혜방 및 국방: 송태종시 진사문 등이 저술한 의서

4) 인민페 10원: 우리 돈으로 1,500원 정도. 일반노동자의 3일치 급여

당대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어 오늘은 방이 없낸다. 다른 호텔까지 가는데 다시 10원을 주고 찾아와보니 그곳은 아직 외국인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우리는 잠자리를 잃은 미아가 되고 만다. 카운터에 다른 호텔의 객실 사정을 전화로 알아보자고 하니 지금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다며 1시 반까지 기다리라는 대답 이외는 일행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무슨 얘기를 그리도 하는지 자기들끼리 살라살라다.

위도상으론 우리나라보다 한참 아래라서 따뜻할 것으로 생각하고 짐을 줄이려고 옷가지도 얇은 것으로 몇개 챙겨왔는데, 초봄의 동장군은 대륙이라 더 위맹스러운지 뼈속까지 에이는 한기는 쌀쌀한 호텔직원의 표정과 함께 일행을 오들오들 떨게 만든다.

결론은 금화엔 방이 없다 <외국인은 전용호텔에서만 숙박가능> 저녁늦게라도 항주를 향해 출발해야 된다는 막다른 골목에서니 아예 배짱이 생기고 살라거리는 중국인들을 다시 여유를 갖고 쳐다볼 수도 있고 뜨거운 오차에 기름진 음식이 땀기며 백알에 불쾌해져 생기를 찾는다.

기차표를 확인하기 위해 미로를 뚫고 나아가는 인력거위에서 '이제 시작이다' '이제 고생길이 트인다'고 확인하며 자신만만하게 담배연기를 맛있게 내 뿜어본다.

여행사를 통해 택시 두대를 부르니 240원(일반농동자 2개월 급료)적안까지 가기로 계약을 하고 출발하니 오후 2시 50분이다.

붉은 황톳길이 비온후 더욱 뚜렷이 푸른 들판과 어울려 개운하게 강남의 농촌풍경이 펼쳐진다. 논두렁을 넘어서 새참을 나르는 듯한 아낙네 - 여유있게 땀이질하는 사깳꾼

농부, 수로의 물레방아

두어시간의 여정끝에 찾아든 조그만 마을에 택시 두대가 들이닥친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동네아이들은 어림잡아 50여명이 몰려들었고 할일 없는 노인들은 귀를 기울이며 어슬렁 어슬렁 이국인에게 말을 걸며 우



단계묘

리 일행이 찾고자 하는 단계묘까지 친절하게도 끝까지 쫓아와 안내를 하며 그들이 알고 있는 단계옹의 일화를 두서없이 자랑한다.

마을어귀 산모퉁이에 사당을 짓고 묘소를 정비하고 사당안에는 단계옹의 흉상을 여러 개 만들어 신격화시킨 민간신앙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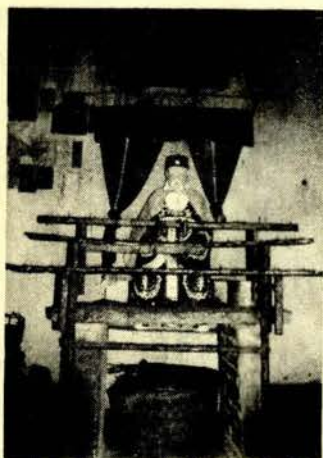
元名醫 朱丹溪墓

이곳이 단계묘다.

이런 하나 하나의 유적이 우리 일행을 감격시키며 한국인으로 처음 찾아왔다는 관리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감격하는 순간 순간은 진정 살아 현신한 단계옹이 미약하나마 醫藥人의 길을 걷고 있는 일행의 가슴에 살아 자음지설의 정수를 전수 해준다는 착각에 정신없이 그분의 사적을 카메라에 담는다.

단계묘 앞에서 향불을 짓피고 재배한 후 그의 업적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끼 끼어 있는 묘지명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분의 숨결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

이제 이곳은 신성한 은총이 있어 토착민들은 정성껏 향불을 지피고 재배 한 후에 산통을 흔들며 점을 쳐서 쾌를 뽑아 약방에 비치된 처방전 번호대로 약을 지어 먹어도 단 1첩에 병이 낫는다는 무속의 약방이 되었을지언정 그들이나 이곳을 찾은 이방인이나 모두 단계선생의 업적에 고개숙이는 뜻은 같대지만 훌륭한 사상을 빛내고 발전시키는 후인이 되어 이 땅에 살고 있어야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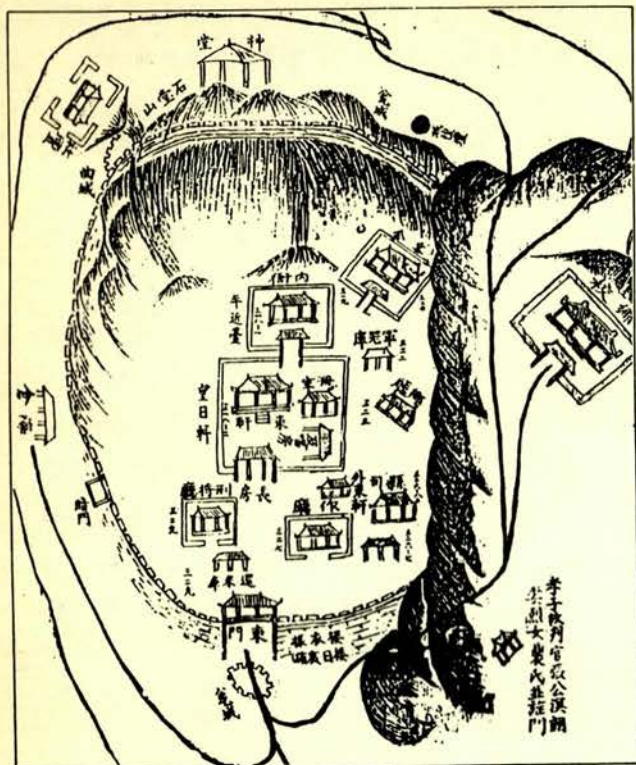


이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한 후 산통을 흔들며 쾌를 뽑아 약을 지어 먹는다.

그들이 미신과 같은 형태로 골격을 드러낸 동양의학의 잔재를 확인하는 씁쓰레함에 일행은 무거운 발길을 돌린다.

어찌하여 동양사상은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냐며 올분의 하늘을 쳐다보니 흐릿한 구름속에 비가 오련듯 안개만 자욱하다.

부슬비 내리는 시골길을 투덜투덜 우마차 같은 택시로 금화역에 돌아와 다시 빈관(=호텔)을 찾아 저녁식사를 하고 인력거를 타고 자유시장에 들러 우위도사고 을씨년스런 날씨를 이기려 속내의도 준비하면서 또 한번의 전쟁을 치러야할 중국의 3동열차를 그려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담배연기 뿌연한 플랫폼에 들어선다.



[結城縣地圖]

表紙地圖說明

本地圖는 結城縣의 古地圖로 他地圖에 準하여 세밀하게 제작 되어 있다. 沿 革과 堂向里와 人口,道路,山川,城地 그 리고 官衙와 場垞各店等邑志와 비교 되는 重要한 史料이다.

規格:50cm×70cm 形式:筆本 年代:1790년경

所藏:奎章閣 結城 黃性昌

편 집 후 기

두번째 발걸음을 내딛으며—

무조건 발간하고 보면 무언가 이뤄진다는 무분별한 확신감에 밀어 부쳤던 패기가 이제는 갈고, 닦고, 유지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더럭 겁부터 난다. 하나를 내놓아도 완전하게 무언가 홍성의 역사속에 이정표를 제시 할 수 있는 자료 정리라도 해내야 된다는 책임감만 앞설 뿐 이렇게 또 엉겁결에 두번째 호를 내놓습니다.

편 집 위 원 臥 石

「홍주문화」는 홍주향토문화연구회에서 발행하여 홍성에 계신 여러분이나 출향인에게 무료로 배포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발행부수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필요하신 분은 홍성문화원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일 인쇄

1991년 12월 일 발행

洪州文化

第 2 號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발행처

황규철
배동순
조양인쇄소 대표 김세환
洪州郷土文化研究會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TEL. 32-3613(홍성문화원 내)

1096